【1】 月刊 登錄라－2448號 1988. 11. 9 第 3 種郵便物(나)級認可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1987년 9월 1일 제114호

同窓會 指標

•參與
•協力
•榮光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大學校 同窓會報

發行人 崔 主 鎬
編輯人 李 聖 秀
印刷人 韓 鍾 愚

發行所
서울大學校 同窓會
郵便番号 121-040
서울特別市 麻浦南 桃花洞 18-2
電話 : 702-2233~5, 717-8536~7

●銀行지로番号 : 7500875
●對替口座서울 : 010017-31-0621565

"학원民主化, 対話로 해결"강조

冠岳의 새主役으로 趙完圭박사 취임 : 趙총장은 지난 25일 취임식전에서 大學의 목표와 기능을 再照明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후배학생들의 올바른 요구는 과감히 受容할 방침임을 천명했다.

冠岳春秋

新任총장에 바란다

지난 8월25일 母校에서는 第18代總長 취임식이 있었다. 새로 總長으로취임한 趙完圭博士는 就任辭에서 무엇보다도 우리社會가 겪고 있는 大變革의 渦中에서 大學의 목표와 기능을 再照明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서 大學의 自律性을 制度的으로 확보하기 위한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서울大學校發展長期計劃」의 具現에 專念할 것을 다짐하였다. 요즘의 우리社會의 民主化 추세와 大學이 처해있는여건에 비추어 大學의 앞날을 크게 밝혀주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고 할수 있다. 우리는 우선 新任總長의 취임을 축하하고, 그분이 所定의 任期를 무사히 마치는 동안 大學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줄 것을 빌어마지 않는다.

新任總長을 맞이하는 慶事스러운 자리에서 꺼내기가 매우 어색하지만 우선 무엇보다도 먼저 任期를 채우는 總長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同門은 한분도 없을것이다. 우리 母校의 지난 歷史를돌이켜 볼 때 특히 近年에 이르러서는 任期를 제대로 마친 總長이 한분도 안계시다. 물론 大學의 발전과 總長의 임기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며, 總長이 大學을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總長은 大學의 威信을 象徵한다. 그런 까닭에 우리의 文化風土는 大學의 總長에게 특별한 존경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돌이켜 볼때 母校는 그러한 자격을 갖춘 훌륭한 總長을 그동안 모셨지만, 그분들은 모두 自意에 의해서이건 他意에 의해서건 任期途中에 總長職을사퇴했다. 한두분이 그랬다면 우리는 그것을 不意의 사고로 돌릴 수 있다. 그러나 그 수가 많다면 그대로 넘길 수가 없는 일이다.

總長이 任期를 마칠 수 있기 위해서는 大學의 自律性이 있어야 한다. 大學이 大學外部의 어떠한 세력의 압력이나 學問外的인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비로서 總長의 任期도 안정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지금까지 유명무실했던 教授協議會를 활성화시키겠으며, 大學評議員會도재구성하여 활성화시키겠다는 새總長의다짐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크게 기대해 볼만한 것이라 하겠다.

이와 관련해서 또 한가지 우리가바라는 것은 學園의 安定이다. 요즘 우리社會는 民主化의 물결을 타고 온갖 욕구가 분출하여 매우 불안정하다. 이런 때일수록 學園은 조용히 본래의목적인 教育과 연구의 기능을 다해야합은 우리 동문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바라는 바이다. 이러한 學園의 안정은 종전까지의 고식적인 방법을 되풀이해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지난 날의 각박했던 學園이 앞으로는 浪漫이 깃든 학원으로 되어야 한다는 總長의 주장에 크게 공감이 간다. 흔히들 말하기를 서울大學校가 조용해야 우리나라의 大學이 조용해진다고 한다. 이말은 결코 근거없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런 점을 생각해서라도 母校의 안정은 우리나라의 大學街의 안정과 직결되어 있음을 특히 강조해 둔다.

마지막으로 모교의 동문으로서 新任總長이 母校를 더욱 발전시켜줄 것을 바란다. 동문으로서는 母校의 자랑거리가 늘어나기를 바란다는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母校가 크게 발전해서 자신의 자부심도 키우고 남에게 자랑도 하고 싶다는 것이다. 우리의 동문이라면 누구나 母校에 대해 큰 自負心을 갖는다. 문제는 이러한 자부심을 앞으로도 더욱 크게 가질 수 있게 하는데 있다고 본다. 여기서 「서울大學校長期計劃」의 具現에 우리는 많은기대를 걸게 된다. 이 계획에 관해서는 우리는 이미 설명을 듣고크게 감동한 바 있다. 母校의 衆智를 모아 長時日에 걸쳐 꾸며진것으로 그 규모는 70年代의 冠岳캠퍼스移轉을 수반한 綜合化案에 필적하는 것이다. 이 계획이 구현되면 母校는 괄목할만한 발전을 하리라고 믿는다. 그것은 70年代의 종합화10개년계획을 보완하고 內實化함을 目的으로 하는 것인 만큼 꼭 실현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상에서 몇가지 新任總長에 대한당부말을 했거니와, 그 어느 것이고 쉽지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말할 것도 없이 母校는 이나라의 교육의 총본산이라는 자부심을 우리는 모두 갖고 있다. 우리 국민이 갖는높은 教育熱, 國際水準의 世界的大學에의 渴望 그리고 공부하는 大學에의 집념을 생각해서, 우리는 新任總長에게 많은 기대를 걸게 된다. 趙完圭總長의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하고 앞날에 영광이 있기를 빌어둔다.

會員 6백73명 새로 迎入

87년도 後期學位 수여자

본회는 지난달末 會則 제5조 1항에의거 87년도 후기 학위수여자 6백73명(학사 2백2명·석사 3백44명·박사 1백27명)을 새가족으로받아들였다. 이로써 본회의 회원총수는 14만8백27명으로 늘어났다.

單大別 동창회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괄호안 숫자는 후기 학위수여자, 명(52) ▲社會科學大學 2천8백90명(6) ▲農科大學 1만8백57명(49) ▲文理科大學 9천7백28명(2) ▲師範大學 1만1백68명(24) ▲商科大學 6천7백19명(18) ▲家政大學 1천9백81명(1) ▲經營大學 1천6백35명(7) ▲工科大學 2만1천4백55명(52) ▲社會科學大學 3천6백72명(41) ▲自然科學大學 3천1백72명 ▲醫科大學 1천5백19명 ▲藥學大學 1천3백15명 ▲音樂大學 3천5백89명 ▲醫科大學 6천8백27명 ▲看護學科 1천9백76명 ▲齒科大學 3천8백5명 ▲大學院 1만9천6백85명(4백12) ▲經營大學院 5백45명 ▲教育大學院 5백55명 ▲保健大學院 1천2백10명(13) ▲司法大學院 5백7명 新聞大學院 2백41명 ▲行政大學院 2천3백36명(34) ▲環境大學院 5백92명(12)

理事에 金道昶동문 李燦河監事는 유임

冠岳會31차 理事會

재단법인 冠岳會는 지난 7월31일 가든호텔 2층에서 제31차 理事會를 열고 임기만료된 監事1명과 朴健碩이사의 별세로 空席이 된 理事 1명을 새로 선출했다.

먼저 임기만료된 李燦河감사의 후임에 대해서는 李監事가 그동안 冠岳會에 기여한 공로, 그리고 公認會計士(대영회계법인 대표)라는 점에서 適任으로 인정되어 李감사를 만장일치로 재선임 했다.

이어 空席중인 理事에 대해서는 동창회 부회장인 金道昶동문(47년法大卒·弁護士)을 선임했다.

水災義捐金 3백만원 寄託

한국일보사 통해

본회는 지난달 4일 제97차 常任理事會 석상에서 水災義捐金으로 즉석 모금한 94만원과 동창회 기금에서 특별계정과목으로 출키로한 2백6만원등 합계 3백만원을 한국일보사에 기탁했다.

同窓會館 賃貸완료

4층에 單大事務室 入住

同窓會館(冠岳會館)의 임대가 지난달 중순 완료되었다.

賃貸現況을 보면 地下層은 경양식집「마로니엔」, 1層은 朝興銀行 桃花洞지점이, 2層은 東西家具(전시장)가 각각입주했거나 할계획이며, 3層은 本會 사무실과 會長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주) 신부코퍼레이션과 홍복여행사에 임대했다. 4層은 각 單大同窓會 사무실로 무상대여키로하였는바, 일부를 요청해온 家政大, 工大, 文理大, 美大, 樂大, 經營大院, 教育大院, 新聞大院, 行政大院, 이들어온다. 單大同窓會사무실은 이미 통보된바와 같이 각 12坪씩 배정했으며 요청에 의해 별도로 5坪을 他 임대사무실과 같은 금액(평당 임대보증금 15만원)에 월임대료 1만3천원)으로 임대하여 17坪을 쓰고 있다. 사무실배정은 지난 20일 해당대학 동창회 幹事長 회의를 소집, 이 자리에서 추첨으로 결정했다.

한편 5層은 多目的홀로 꾸며 동문들의 각종 集會 및 展示, 그리고 結婚式도 올릴 수 있도록 했는데 多目的홀의 사용은 9월15일 이후에는 언제나 가능하다고 한다.

隣接경계침범 垈地 現場檢證鑑定

인접대지의 경계침범으로 인해 주도공을 못보고 있는 同窓會館은 현재垈地引渡訴訟을 제기중에있는데, 지난 19일 경계침범부분에 대한 현장검증을 담당판사, 변호사, 경계침범건물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한편 이에 대한 1차 결심은 9월15일 상오10시에 있을 예정이다.

컴퓨터키폰 寄贈

林鍾琰金星通信社長

林鍾琰동문(56년工大卒·본회이사·금성통신사장)은 지난 7월末 동창회 사무실의 會館入住를 축하하는 뜻에서 금성컴퓨터키폰 5대(간이교환장치 포함)를 기증했다.

이 컴퓨터키폰은 동창회 사무실에 3대, 현관 그리고 地下 기계실에 각 설치했다.

"同門은 배움의 土壤에 은혜 갚아야"

新任 趙完圭총장 인터뷰

『능력없는 제가 다구나 다할 각오이며 만약 학교 사회의 轉換期에 우리나라 高等教育機關의 最高峰이라 할 수 있는 모교 總長職을 맡게되어 실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난 14일 전임 朴奉植총장의 후임으로 제18대 모교 총장에 취임한 趙完圭총장은 취임소감을 이같이 밝히면서 모교 발전을 위해 미력이나마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제 동창회에 대한 總長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총장님께서는 本報 編輯委員으로서도 오래도록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동창회 사정에도 매우 밝으실줄 아는데 모교와 동창회와의 유대강화를 위한 高見이라도.

『출생과 姓은 바꿀수 있어도 출신대학은 죽을때까지 바꿀수가 없습니다. 결국 동문들이 모교발전을 위해 열마만큼 기여를 하고, 또한 기여케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할것 같습니다.』

—끝으로 동문들에게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國立大의 예산은 대학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모교발전을 국가에만 의존해서는 세계속의 일류대학이 될수 없읍니다. 세계속의대학으로 雄飛하려면 물론대학에 몸담고 있는 教授·學生들의 노력이 있어야겠지만, 그것을 가꾸고 만들어 주는것은 역시 각계각층의 주요 위치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동문들이 해주어야 합니다.』

趙총장은 모교를 육성하는 것은 미래의 우리나라 運命을 걸머질 훌륭한 人材를 길러낸다는 긴 안목으로 동문들이 적극 앞장서 줄것을 당부한다.

趙총장은 제1공화국때 2대 대법원장을 지냈던 부친 趙容淳(작고) 동문(22년 京城專修卒·법대동창회 2대 會長 역임)과 슬하에 2男1女중 2男 鎭完군이 85년 社會大 經濟學科를 졸업(현재 美國 일리노이大 유학중), 결코혼치 않은 3代가 同門으로 이어지고 있다.

趙총장은 同門을물론, 각계로부터 밀려오고 있는그에 대한신선한 기대를 인식한듯 기자와 헤어지면서『막중한책임감으로 역사앞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했다.

"母校의 育成은 국가의 命運 걸머질 人材를 養成하는것"

趙총장은 정부의 지원과 동문들의 관심만 있다면모교를 국제적 수준의 대학으로 키우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화원 自律化가 당면한 과제일텐데요.

『자율화는 방종이 아닌 자연과화대하장, 부총장등의 주요 보직을 차례로 거치며 大學운영에 깊이 관여해 왔다. 때문에 누구보다도 학교사정에 밝아 예상되는 격동의 전환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모교 발전에 커다란 한 획을 긋는 일대 轉機를 마련할것으로 기대된다. 바가 크다.

—發展長期計劃의 추진 등 앞으로 할일이 많으실걸로 아는데, 모교의 구체적 발전계획은.

『전임총장이 착수한 발전장기계획은 당연히 지속적으로 실천되어야 하며 그 달성시기를 앞당겨 있도록 노력해 국제수준의 연구능력을 갖출수 있도록 해나가겠읍니다.』

올바른 要求는 과감히 受容

교발전을 국가에만 의존해서는 세계속의 일류대학이 될수 없읍니다. 세계속의대학으로 雄飛하려면 물론대학에 몸담고 있는 教授·學生들의 노력이 있어야겠지만, 그것을 가꾸고 만들어 주는것은 역시 각계각층의 주요 위치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동문들이 해주어야 합니다.』

趙총장은 모교를 육성하는 것은 미래의 우리나라 運命을 걸머질 훌륭한 人材를 길러낸다는 긴 안목으로 동문들이 적극 앞장서 줄것을 당부한다.

趙총장은 제1공화국때 2대 대법원장을 지냈던 부친 趙容淳(작고) 동문(22년 京城專修卒·법대동창회 2대 會長 역임)과 슬하에 2男1女중 2男 鎭完군이 85년 社會大 經濟學科를 졸업(현재 美國 일리노이大 유학중), 결코혼치 않은 3代가 同門으로 이어지고 있다.

趙총장은 同門을물론, 각계로부터 밀려오고 있는그에 대한신선한 기대를 인식한듯 기자와 헤어지면서『막중한책임감으로 역사앞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했다.

〈관련기사 18면〉

登山大會 10월 18일 개최

參加者 전원에게 中食 제공

來月 10일까지 同伴家族 함께 申請해야

「同窓의 날」(10월15일)을 전후하여 매년개최하고 있는 同門親睦登山大會가 금년에는 오는 10월18일(日曜日)로 결정(단 雨天時 1週 순연)되었다.

본회는 지난 7월31일 제97차 常任理事會를 열고 등산대회 개최일자를 이같이 결정한후 세부행사계획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일임키로 했다.

登山코스는 지난해와 같은 모교 冠岳캠퍼스 正門앞→冠岳山 계곡→農大부속 樹木園으로서 어린이나 老弱者에게도 쉬운 약 6㎞(2시간30분소요)의 하이킹 코스이다.

참가대상은 同門과 그 家族으로 제한하며 참가자 전원에게는 中食이, 그리고 成人에게는 酒·飮料와 包裝肉이 1包씩 제공될 예정이라고 한다.

登山은 18일 9시 정각에 관악캠퍼스正門앞을 출발할 계획이며, 中食이 끝난 오후1시부터 3시까지는 전문 레크리에이션 사회자를 초청, 중간 경품을 추첨하는가운데 여흥을 가질계획이다.

登山大會 참가를 희망하는 同門은 대회준비관계상 동문의 姓名, 出身單科大學, 卒業年度 그리고 참가 가족수를 적어 늦어도 10월10일까지는 동창회 사무처에 도착되도록 우송해야 된다. 不得已 우송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電話신청(702-2233~5, 717-8536~7)도 받는다 한다.

會費納付실적 호조

上半期중…任員70%넘어서

지난 31일 제97차 常任理事會에서 보고된 동창회의 上半期 業務現況에 따르면 임원의 특별회비를 비롯 회원들의 회비납부실적이 前年對比 크게 好調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任員의 경우 會長團이 총 1천10만원예산에 이미 7백30만원이 입금되어 72%의 납부실적을 보이고 있고, 理事는 8천6백만원 예산에 5천4백5만원(전년도 4천2백41만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一般會費는 1억1천5백만원 예산에 5천8백18만원(전년도 5천3백36만원)이 입금되어 대체로 60%이상의 실적을 上半期중에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외 會報 廣告料와 收入利子등도 前年同期보다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同窓會館完工보고

97차常任理事會

본회는 지난 7월31일 가든호텔 2층에서 제97차 常任理事會를 열고 집행부로부터 지난 上半期중의 업무현황과 同窓會館의 완공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崔主鎬회장의 주재로 오후8시 개회된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上半期업무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吳演洙사무처장은 會費納付실적이 호조를 보여 상반기의 각종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同窓會館의 완공에 대한 經過報告가 있은후 同窓의 날을 전후하여 매년 개최하고 있는 同門親睦登山大會를 금년에는 10월18일 개최키로 결정하고 세부 행사계획은 사무처에 일임키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석상에서는 지난 4·5월중에 동창회장에 새로 선출되어 이날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한 美大 金瑞鳳회장, 教育大學院 李應鎬회장에 대한 소개가 있었고, 이들 전임회장인 白文基(美大), 尹享遠(教育大學院)동문에게는 그동안 동창회 발전에 힘쓴 공로를 치하하고 각각 感謝牌를 증정했다.

회의가 끝난후에는 최근 凡國民的으로 펼쳐지고 있는 水災義捐金 모금에 동창회에서도 함께 참여하자는 李聖秀상임부회장의 제안이 받아드려져 즉석에서 94만원을 모금하고 또 동창회 기금에서 2백6만원을 특별계정과목으로 지출키로 하여 총 3백만원을 水災義捐金으로 출연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모교 副總長에 새로 취임한 河斗鳳동문이 참석, 인사를 했는데 河부총장은 『뜻밖에 大任을 맡게 돼 책임이 무겁다』면서 『선배님을 비롯한 졸업생 여러분이 모교를 향상 자랑할 수 있도록 서울大의 발전을 위해 가일층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table><tr><td>

同窓會館 이용안내

同窓會館 5층에 2백 여평의 아담하고 조용한 多目的홀을 마련했읍니다. 각종 행사와 會議, 宴會, 結婚式을 할 수있도록꾸몄아오니 많은 利用있으시기 바랍니다. 저렴한 賃室料로 사용하실 수 있읍니다.

連絡處：麻浦區 桃花洞18－2
서울大學校同窓會
電話：702－2233～5

</td></tr></table>

會館入住 祝賀

▲鄭宗澤(본회부회장)＝벽시계 1개 ▲鄭仁教(조흥은행 도화동개설준비위원장)＝화분 ▲康普鉉(서울시장)＝화분 ▲尹勤煥(농협중앙회장)＝화분 ▲全禮銘(민족중흥동지회장)＝축전 ▲金炳璇(서울신탁은행 공덕동지점장)＝벽시계 1개 ▲鄭勛英(과총사무총장)＝화분 ▲孫東燮(한국주유기사장)＝화일박스 1조.

필라支部

새 會長에 吳珍銛동문

60여會員참석리 금년總會 성료

본회 필라델피아支部는 지난 4월25일 그곳소재 국일관에서 금년도 총회를 열고 새 지부회장에 吳珍銛동문(60년齒大卒·오진석치과의원장)을 선출했다.

회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87년도 회장단을 선출한 이날 총회에서는 신임 吳회장을 비롯하여 제1부회장엔 양운택(의대), 제2부회장 최현태(문리대), 제3부회장 김태옥(문리대), 총무 박노억(공대), 감사 정덕준(상대) 동문이 선임되었다.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吳동문은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발전을 위한 지원에 전력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한편 吳동문은 모교 치대와 대학원을 졸업(62년)하고 渡美, 지난 10여년간 필라델피아에서 치과를 개업해오고 있으며 부인 유신자씨(45세)와의 사이에 2남1녀를 두고 있다.

필라델피아支部의 새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SNU·Alumni Association Philadelphia J&L instruments Corp. manufacturers of Viscometers 101 queens drive King of Prussia, PA 19406

齒大21回同期會

9월4일 갖기로

卒業20주년記念式

齒大 제21회동창회(회장·朴義源)는 졸업20주년 기념식및 사은회를 9月4日(금) 오후6시반 서울 쉐라톤 워커힐 3층 코스모스홀에서 개최할예정이다.

2학기

奬學金 3천7백만원 支給

11개同窓會서… 1백16명이 수혜

本會를 비롯한 총 21개 大學(院) 동창회에서 87년도 제2학기 장학금으로 모교생에게 지급한 금액은 총3천7백86만8천5백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장학금지급은 대부분 등록기간중에 이루어졌는데 총 1백16명이 수혜를 받았다. 그러나 이 수혜대상 학생수와 지급액은 각 大學(院) 동창회만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科別、期別、서클別、혹은 동문개별적으로 지급한 장학금까지 계상한다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奬學會를 설립하여 비교적 장학기반이 확고한 동창회로는 本會(재단법인 冠岳會)와 法大同窓會(驗山奬學會), 師大同窓會(同門奬學會)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법대동창회는 3억8천여만원의 기금을 확보, 이번학기에도 5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 총 1천5백20만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本會는 금년까지 지급액이나 장학생수가 별로 내세울만 하지 못했으나 이제 冠岳會館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대폭적인 증액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商大同窓會는 法人은 설립되어 있지 않으나 동창회 기금에서 매년 20~30명 규모의 학생에게 장학금 1천여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기타 工大、農大、美大、獸醫大、音大동창회에서는 실질적으로 동창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으나 科別 혹은 期別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醫大는 장학금대신 모교에 학술연구재단을 설립, 教授에게 연구비를 지원토록 해주고 있다.

동창회별 2학기 장학금 지급현황은 별표와 같다.

奬學金 支給현황

(87년도 2학기분 단위＝원)

同窓會別	支給人員	支給額
本會	9	3,516,500
家政大學	1	478,500
工科大學	–	–
農科大學	–	–
文理科大學	6	2,645,000
美術大學	–	–
法科大學	50	15,200,000
師範大學	15	4,119,000
商科大學	12	5,160,000
獸醫科大學	–	–
藥學大學	10	1,500,000
音樂大學	–	–
醫科大學	–	–
齒科大學	4	1,917,500
大學院	–	–
經營大學院	1	422,000
教育大學院	–	–
保健大學院	–	–
新聞大學院	–	–
行政大學院	5	2,110,000
環境大學院	4	800,000
計	116	37,868,500

教育·政治·文化界에 큰 자취

玄民 俞鎭午박사 別世

우리나라의 교육·정치·문화계에 큰 발자취를 남긴 玄民 俞鎭午박사(사진·29년京城帝大卒)가 지난30일 모교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81세.

俞박사는 83년12월26일 뇌혈전증으로 쓰러진후 3년8개월간의 투병끝에 끝내 幽明을 달리한 것이다.

故 俞박사는 48년 정부수립당시 헌법기초위원으로 제헌헌법의 草案을 마련했으며 52년9월부터 65년10월까지 2、3、4대 고려대총장, 韓日회담韓國대표(51년), 학술원종신회원(54년), 국가재건국민운동본부장(61년)등을 지냈다.

俞박사는 66년9월에 民衆黨에 의해 대통령후보로 영입지명돼 政界에 입문했으며 67년1월 新韓黨과 民衆黨을 新民黨으로 통합하며 尹潽善씨를 대통령후보로 하고 자신은 통합야당의 총재로 취임했다가 70년1월 총재직을 사임했다.

法大同窓會 초대회장과 本會 顧問(76년)을 역임하며 동창회발전을 위해서도 큰 기여를 했다.

單科大學 同窓會 探訪

經士會

경영대학원 碩士동문들 모임
세미나 열어 상호關心事 논의

「經士會」。吳世權(호남에틸렌이사)同會총무는 經士會를 가리켜 「보통사람들의 모임 속박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한마디로 설명한다.

吳동문의 설명대로「속박을 싫어하는」사람들의 모임답게 同會는 그 흔한 會則이라든가, 規約같은것도 전혀 없다. 그저 會員의 자격만「母校 經營大學院 碩士課程을 1969년에 입학및 71년 이후 졸업생을 중심으로」라고 규정하고 있을뿐인데 이 「중심으로」라는 말이 또한 묘한 뉘앙스를 풍긴다.

◇朴鍾伯 회장

설명인즉, 1969년에 모교 경영대학원 碩士課程을 입학한 同期는 晝夜間을 합하여 약 1백20여명이 되는데 經士會는 이중에서도 본인들이 入會를 희망한 3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經士會란 이름아래 모이게 된 것은 지난74년부터라 한다. 이전에는 부정기적이긴 하나 몇몇이 수시로 모임을 가지다 보니 점차 그 수효도 늘어나게 되었고 數가 늘다보니 자연스럽게 會의 명칭을 붙인것이 經士會였다는 것이다. 經士會가 순自生的인 모임임을 강조하는 吳총무는 스스로가 참여한 모임이기때문에 모임때마다 회원들의 참여율 또한 매우 높다고 자랑한다.

初대 회장은 嚴鶴善동문(㈜췌밀리 회장)이 맡아 수고했고 이어 2대 金永煥동문(明知專門大교수), 3대朴鍾伯동문(한국케미칼운수㈜감사)으로 이어지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히 同會의 오늘이 있기까지에는 1·2대 총무를 역임한 金亮明동문(청운회계법인 공인회계사)의 열성적인 노력이 크게 뒷받침되었고 唯一한 紅一點인 金英淑동문(청주대학교 교수)의 공헌 또한빼놓을수 없다며 두동문에 대한 칭찬이 대단하다.

同會는 年2回의 정기모임을 갖고 있는데 봄에는 定期總會를, 12월에는 忘年會를 개최하고 있다. 또 필요에따라서는 수시로 임시 회의를 소집, 會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있다. 모임에서는 會운영에 관한 사항뿐만이아니라 상호전문지식에대한정보교환, 건강관리및 자녀교육문제, 기타 국내외적 관심사 논의등 특별히 의제에 구애됨이 없이 사랑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외 會員및 직계가족들의 慶弔事시에도대부분의 회원들이 빠짐없이 참석하여 祝賀·慰勞를 해주고 있어 經士會의 모임은 거의 2～3개월에 한번꼴로 이루어지는 셈이라 한다.

同會의 또한가지 특징은 회원들의 일정한 會費제도가 없다는 것이다. 이 또한 회원들에게 구속력을 주지않기 위해서라는데, 필요經費는 그때그때마다 각출해서 쓰고 있다. 그러나 후배들을 위한 奬學金 지급및 모교 발전을 위한 지원등 장기적인 眼目에서의 基金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會費負擔問題가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현재同會의 발전을위해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동문을 살펴보면 金東培(주택은행 대구 북아현동 지점장), 金信政(대우자동차 이사)、金容範(철도청국제협력과 사무관)、朴金石(산업은행 금융1부 차장)、朴明書(미륭건설 이사)、朴正男(신한기공건설 업무부 차장)、朴弘植(특허청 차장)、윤석태(제일은행 광화문지점 차장)、李光寅(수출입은행 심사부 차장)、李東燁(신용보증기금 경제조사부장)、李逸均(명지대학교 교수)、李薰一(삼주 사장)、張五鉉(동국대학교 교수)、田有明(경방 감사실 차장) 鄭龍根(범세해운 이사) 鄭鎭英(종근당 무역부장)、崔京鐸(동서식품 전무)、韓仁守(동아건설 원자력부장)、朴秉花(상업은행 서울역지점장)동문등이 핵심멤버를 이루면서 同會를 이끌어 가고 있다.

ᄒᆞᆫ울회

美大출신 女性画家그룹
매년作品展, 實力을 과시

「ᄒᆞᆫ울회」는 모교美大를 졸업한 女性同門으로서 현재 활발한作品活動을 펴고 있는女流作家들의 모임체이다.

1979년 創立된 同會는 「선·후배간의친목과 創作活動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하고 會의 명칭을 「ᄒᆞᆫ울회」로 정했다. 會의 명칭을 「ᄒᆞᆫ울회」로 정한 것은 「ᄒᆞᆫ울」의 뜻이 한 울타리를 뜻하기도 하며 큰 울타리를 뜻하기도 해 會의 성격을 同門의 親睦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앞으로 화단을 대표할수 있는 미술단체로 발전시켜 보자는 취지에서라는 것. 그래서인지 同會의 회원 資格要件도 매우 엄격한 편이다.

◇李信子 회장

일반적으로 동창회의 회원이라면 해당 學校나 學科, 혹은 卒業·入學年度를 같이한 사람을 통칭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 「ᄒᆞᆫ울회」의 회원은 우선 女性임을 前提한 가운데, 「卒業 후 작품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者」로 단서를 달고 있다. 또 新入會員으로 加入하려면 각 期別 幹事의 추천에 의하여 運營委員會의 심의를 반드시거치고 그에서 통과되어야만 會員資格을 얻게 된다. 때문에 비록 美大를 나온 女性同門이기는 해도 創作活動을 하지 않고 가정에만머물러 있을 경우에는회원이 될 수 없다. 또 비록 會員이 되었어도 아무런 事由없이 「ᄒᆞᆫ울회」作品展에 연이어 2회 출품치 않는 회원은 제명되고만다.

◇제9회 作品展의 展示場전경

「ᄒᆞᆫ울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에는 모임을 처음 시도한 61년 졸업동문의 힘이 컸다. 61년 졸업동문들은 각자 生活의 安定을 어느정도 이룩하고난 뒤부터 專功(創作活動)을 계속하기로 하여모임을 주선해 왔으며, 이를 계기로 하여 점차 참여의 폭을 넓혀 온 것이 현재에 이르렀는데, 그동안 初代會長 金栽妊동문(예원중학교 교사)을 비롯해 李英恩, 全明子동문(한성대학 교수)이 會長으로서 會의 발전을위해 헌신했었고 현재는 李信子동문이 수고하고 있다.

「ᄒᆞᆫ울회」가 갖는年例行事로서 가장 큰比重을 차지하고 있는것은 年1～2회 갖는作品展이다. 이 作品展은 회원 거의 대부분이참여하는데다 장르를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畵壇에서 상당한 注目을 받고 있는 展示會이다.

1980년 10월 첫작품전을 개최한이래 매년1～2회 정기적으로 개최해와 금년으로 9회째를 맞게됐는데, 금년 전시회는 지난 7월3일에서 8일까지 6일간 문예진흥원 미술회관에서 성대히 개최된바 있다. (출품회원수 86명)

또 세계적인 미술단체와의 교류를 위해 82년에는 미국 로스앤젤리스 삼일당에서 作品展을 갖기도 했는데, 내년 10회 전시회도 海外에서 외국단체와 협력전을 가질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전공이 전공이니만큼 작품의 질적향상을 꾀하기 위해 화술대회나 워크·샵을 수시로 열고 있다. 그리고 소재의 발굴을 위해 박물관이나 고적지등을 많이 답사하고있고, 한편으로 스케치여행을 자주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회원간의 친목 또한더욱 굳게 다져나가고있다. 올봄에는 청주로 雲甫 김기창선생을 방문하여 도자기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을 나누는 등 作家와의 對話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고, 오는 10월에는 페이퍼(종이)를 주제로 한 워크샵을 개최할예정이라는 것.

『스케치여행이나 현장답사 등은 한정된素材를 벗어나 새로운분야의 素材나 材料를발굴하려는데 意義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경향의 作品을 追究하는, 말하자면 언제나 공부하는 자세를 견지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죠. 그리하여서울대 출신의 女性모임체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미술단체로 부각시킨다는 것이 전체 회원의 공통된 마음이죠. 지금까지는 선후배간 격의없이 잘 화합하여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으니 기쁩니다』현 회장인 李信子동문의 말이다.

이러한 친목 및 작품활동외에 모교발전에도 무언가 기여하자는 취지아래 그 基金을마련코자 신입회원에 대한 入會費制를 신설하는 등 그에도 많은관심을 가지고 있다한다.

현 회원은 1백20명(75년 이전 졸업자)

현재의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會長:李信子(德成女大 교수)
▲運營委員:金芝烈、鄭壽嬅、崔愛敬、權寧淑、崔錫和
▲總務:徐泳淑
▲財務:金貞淑
▲監事:玄淑子、崔淑卿

잊을 수 없는 스승

―글·李尙國 53년 医大卒·母校医大교수

母校발전의 恩人

前母校총장 尹日善 선생님

半백년 연구와 教育에 몸바친 腫瘍學권위

記憶力 대단한 童顔에 爐邊情談즐긴 碩學

高邁한 인품, 弟子에게도 깍듯이 禮遇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病理學者이시며 일찌기 1930년대 日本京都帝大醫學部를 졸업하신후 醫學의 근본문제를 추구하시려는 뜻으로 基礎醫學중 특히 病理學을 전공하셨다。 귀국하신 후에는 京城帝大醫學部 病理學教室에서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助教授에 임명되셨다。

그후 세브란스醫專으로 옮기시어 教頭겸 病理學教室主任教授로 연구 및 教育에 전념하셨다。 8·15해방후 京城大學 病理學 教授겸 醫學部長, 서울大學校大學院長, 副總長, 總長등 서울대학교 창립과 더불어 教員行政의 重責을 맡으셨고 1961년 정년퇴직후 名譽教授로 추대되셨다。

또한 1946년 大韓病理學會 창립과 더불어 初代會長으로서 病理學會의 기반을 이룩하셨고 1948년에는 大韓醫學協會長, 1958년에는 大韓癌學會를 창립하시어 初대회장을 역임하셨다。 한편 1954년이래 大韓民國 學術院 終身會員으로 임명되셨고 元老會員으로도 계셨다。

筆者가 처음 선생님을 뵈온 것은 6·25전쟁이 일어난 해인 1950년 봄 醫大 2학년 病理學 강의시간이었다。 동란으로 중단되었던 강의는 부산 피난시절 戰時聯合大學에서 계속되었고 필자는 선생님의 고매하신 인품과 학문에 대한 정열 그리고 腫瘍學의 名講義에 깊은 감명을 받아 1953년 3월 서울大醫大 졸업때 病理學 특히 腫瘍病理學을 전공하고자 선생님의 문하생으로 지원하였다。 다행으로 허가가 내려져서 病理學교실에 助教로 入局하게 되었으며 그당시 大學院長을 겸하고 계셨던 선생님의 강의를 도와드리게 되었다。

서울 환도직후 선생님께서는 대학원 復舊업무등으로 매우 분주하셔서 뵈옵기 어려울때가 많았다。 그런 어느날 필자는 부친小喪으로 급거 지방을 다녀와야 했었는데 선생님을 뵈올 수가 없어서 허락없이 그냥 다녀온 일이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귀경 즉시 선생님의 부름을 받아가 뵈었더니 크게 화를내시며 『學問이라는 것은 機會가 주어지면 누구나 할 수 있어, 하지만 학문하기전에 우선 사람이 되어야하는 것이야』 라고 나무라셨다。 평소에는 별로 말씀이 없으시지만 한번 화를내시면 대단히 무서운 분이시기도 하셨다。 한편 제자들에게 까지도 예의를 너무 잘 갖추셔서 때로는 저희 문하생들로서 오히려 송구스러웠다。 10수년전 신학기초 불초 필자가 故 李濟九교수님의 정년퇴임으로 病理學교실의 주임교수로 임명된 수일후의 일이었다。 필자가 醫大본관에서 부속병원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오던 승용차가 한대가 5~6미터 앞에서 갑자기 정지하더니 차에서 노신사 한분이 급히 내리셔서 이쪽으로 다가오시는데 바로 선생님이 아니신가。 필자는 놀라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선생님께서 저 앞에 서시더니 허리를 굽히시고 악수를 청하시면서 『이번에 病理學教室主任教授에 취임하시게 되어 충심으로 축하합니다』 라고 정중히 인사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필자는 몸시 당황하고 송구스러워 몸둘 바를 몰랐고 그저 큰절을 하고 『네, 감사합니다』 하고는 다시 차를 타시고 떠나시는 뒷모습만 잠시 멍하게 바라보았었다。 필자는 老스승의 이러한 人事에 명예스러운 病理學教室의 전통을 계승해 나아가야할 중책을 통감하였었다。

선생님께서는 다소의 재능보다는 사람됨을 중요시하시고 인격이 결핍된 자는 학문을 할 자격이 없다고 보신 것이다。 필자 또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격과 인간성을 학문하는 사람의 기본요건의 하나로 중요시해 왔음은 어언간 이러한 선생님의 가르치심에 연유된 것이 아닌가 싶다。

선생님께서는 또한 대학교수직의 권위와 존엄성을 중히 여기셨다。 1970년대 중반기의 일로 기억되는데 文教部長官 주최로 總長및 의대교수들이 연석한 간담회가 있었다。 會食후에 장관 인사에 대하여 最年老(名譽)教授로서 선생님께서 담사를 하시는중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 『오래전 일본의 京都大의 학부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신임 某文部大臣이 초도순시차 同 醫學部에 들러 예고없이 解剖學 강의실에 들어서자 때마침 강의중이던 해부학 교수가 강의에 방해가 되니 나가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자 그 大臣은 두말없이 자기의 無禮를 사과하고 즉시로 물러갔었읍니다……

學問의 상아탑속에서 오로지 연구와 교육에 몰두하는 대학교수는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본인이 서울大總長재직시 어느 교수도 一對一로 대하였지 결코 내部下로 생각해 본 일이 없었읍니다』 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에는 몇가지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중 선생님께서는 특히 대학교수직의 권위와 教權이 존중되어야 한을 강조하신 것으로 안다。

선생님께서 서울대의대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신 病理學 강의는 주로 一學期에 시행되는 총론중 退行性 組織變化(신진대사장애) 및 腫瘍 病理學을 담당하셨으며 강의시간을 시계바늘처럼 정확히 엄수하셨다。 總長職에 계실 적에도 休講이라고는 없으셨고 患候中이실 때라도 教室의 教職員 누구인가에 꼭 代講을 당부하셨다。 강의는 黑板에 그림을 그리시면서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중요사항을 요약하여 간결하게 하셨다。 다만 연로하신 후에는 음성이 작아지셔서 넓은 강의실 뒷좌석에 앉아있던 학생들에게는 잘들리지 않아 선생님 강의의 眞髓를 이해치 못한 학생들이 더러 있었던것 같다。 그러나 앞좌석에 자리잡아 그 강의를 경청하면 과연 명강의구나 하는 것을 통감하게 된다。 선생님은 강의중 불필요한 말씀은 하시지 않으시며 또 같은 말씀은 되풀이 하시지도 않으셨다。 大學院 강의는 腫瘍學、新陳代謝障碍、內分泌系 病理學및 肝病理學등을 담당하셨는데 강의는 선생님의 방인 교수실에서 하셨으며 학생이 단 한명 뿐일때도 缺講하시지 않으셨다。 강의때는 학생들을 방한쪽에 있는 응접용 의자(쇼파)에 앉게 하시고 선생님은 벽을 향하여 사무용 책상을 앞에 두시고 앉으셔서 가끔 학생들을 뒤돌아 보시며 열심히 강의를 하셨으니 그 珍風景을 회상하면 지금도 웃음과 감명을 금치 못한다。

매년 1월 1일에는 교실 신년초 행사로 教室員 전원이 흑석동의 선생님 댁으로 세배를 간다。 세배후엔 으레히 사모님께서 손수 만드신 시내 有名製藥店의 것과는 전혀 그맛이 다른 훌륭한 케이크와 紅茶를 대접받는다。 선생님께서는 우리들과 같이 시간 가는줄 모르시고 歡談하신다。 話題는 처음 病理學教室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되어 선생님께서 옛날에 다녀오신 선진제국의 저명한 대학、연구소및 碩學들의 이야기로 꽃을 피우시는데 이럴 때는 먼 옛날의 일들을 회상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선생님의 얼굴은 완전히 童顔이 되신다。 선생님의 기억력은 흔히 젊은 사람들도 당하지 못할 정도로 非常하시어 우리들은 늘 감탄하고 있다。

선생님께서는 문학、미술음악등 취미가 다양하시며 특히 미술에는 상당히 조예가 깊으시다。 외국에 여행을 가시면 바쁜 시간을 할애하셔서 꼭 그곳의 저명한 미술관과 박물관을 찾으신다。 각종 국내 美展에도 대개는 나가셨던 것으로 필자는 알고 있다。

선생님께서는 바쁘신 일과에도 불구하시고 結婚主禮를 수없이 많이 서셨고 主禮辭를 보통 1~2분내로 끝내시는 명주례로서도 유명하시다。 불필요한 형식적이거나 가식적인 것을 싫어하시는 선생님의 성품이 바로 이 주례사에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主禮辭 뿐만아니라 機關長으로서 하시는 훈시나 인사를 위한 연설도 5분이 넘으시는 일은 드물었다。

선생님은 학문에만 전념하신 나머지 세상물정에 너무 어두우시다는 말씀을 듣으시곤 했었다。 국제학술회출석차 자주 외국을 여행하셨는데 귀국시 가져오시는 것은 오로지 기증받으신 순종 마우스나 렛트등의 실험용동물과 전문서적뿐이고 가족이나 친지분들에게의 선물등은 아예 사오시는 일이 없으셨다。 한번은 사모님의 간곡하신 부탁으로 洋靴 한 켤레를 사오시게 되었는데 當地에서 신발 크기를 모르셔서 그상점에서 주는 대로 사가고 오신 것이 사모님께는 도저히 맞지않는 白人……어린이 것이었다고 하니……

선생님의 학문에 대한 정열은 대단하셔서 주옥같은 연구업적들을 남기셨다。 특히 각종 호르몬이 각 장기 알레르기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것、 암 통계、 암조직의 발생및 移植에 관한 것 그리고 고환적출이 「아나휘락시」를 감퇴시킨다는 연구등은 훌륭한 업적들이시다。 또 1948년 저명한 美國癌研究誌에 한국인종양의 통계적조사연구 논문을 게재하시어 한국인 종양의 발생상황을 최초로 외국에 소개하셨다。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논문은 自著 50편、 지도논문 2백60편이며 그중 박사학위지도논문은 90여편에 이른다。

선생님께서는 八~九旬의 고령에 보행이 불편하셔서부축을 받으시면서도 국내주요學術大會에 참여하시고 수년전까지만 해도 매주1~2回 病理學 教室에 들르셔서 최근 學術誌를 보시며 교실내연구진행상황등에 관심을 보이셔서 후학들의 模本이 되셨다。

선생님은 이제 선생님께서 사랑하시던 사모님을 비롯한 유가족、친지 그리고 저희들 수많은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영원히 하느님곁으로 떠나가셨다。 하지만선생님께서 남기신 귀중한연구업적들을 고이 간직하고선생님께서 보여주신 고결하신 인품과 진리탐구를 위한 끝없는 열정들을 받들어 우리 후진들은 길이길이 선생님을 거울삼아 뒤따르렵니다。

碩士 3백44명·博士1백27명) 同門총수 14만 8백27명으로 늘어나

◇음악학석사

▲음악=김종성 박경종 조영상 오충근 이명희 이호광 우인택

◇의학석사

▲의학=이상동 윤수종
▲간호학=김태주 이은숙
▲치의학=안명석 이홍상

◇보건학석사

▲보건=박명섭 이진현 김현이 오진주 정혜란 김남권 김성덕 박기흑 신윤재 진홍욱 최현숙 이래형 신경호

◇행정학석사

▲행정=김병철 김정열 이기만 조명균 유진룡 오성익 김용범 서태종 최하동 방문규 이상하 이용석 장호진 정강정 정양성 이기선 안용모 방영민 송경근 장인태

◇도시계획석사

▲환경계획=김명산 김화일 홍대벽 권태균 김기천 김한수 한동근 김영식 한기선 박수남
▲환경조경=이경진 김창익 ▲정책=박승원 현경병 황보 열 강승모 김영호 김응권 조동우 최민구 박상돈 강종필 한병락 김왕복 김희법 이인수

博士學位 취득동문 (論文題目)

◇문학박사

▲박인기=한국 현대시의 모더니즘 수용연구
▲서정목=경남 방언의 의문문에 대한 연구
▲정원표=紫霞申緯의 漢詩 硏究
▲이영옥=Small Clause and -ing Construction (소절과 -ing 구문)
▲이완일=현대독일어 인칭대명사의 통사-의미론에 관한 연구
▲차덕웅=독일어시간 접속사의 의미와 시간 복합문의 시제대응에 관한 연구
▲배정석=막스·프리쉬의 소설「슈틸러」에 나타난 像의 문제
▲정인교 : 경상도 방언 성조의 비단선적 음성, 음운론에 관한 연구
▲채상식=高麗後期 佛敎史 硏究
▲조영록=明代 科道官 體係의 形成과 政治的 機能에 관한 硏究
▲서관모=한국 사회계급구성의 일 연구
▲장성수=집단응집성이 분배원칙 선호에 미치는 영향
▲김정희=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적 세트 및 대처 방식의 우울에 대한작용 : 대학신입생의 스트레스 경험을 중심으로
▲이승복=어린이 언어에서 부정문의 이해
▲오수성=Garuer 지각분류과제의 수행에 나타난 정신분열증 환자의 주의장애
▲권순식=한반도 화강암 풍화층에 발달된 제4기 후반의 주빙하 결빙구조에 관한 연구
▲연진경=아동의 공감발달 및 관련변인
▲이기영=가사노동의 상품대체에 관한 연구

◇철학박사

▲황선명=근세 한국 종교문화와 후천개벽사상에 관한 연구-근대화 과정에 있어서 분화 지속성 인식-

◇이학박사

▲이상석=Equivalent Formulations of Ekeland's Variational Principle and Their Applicatiod
▲김준기=Uniqueness of the Cauchy Problem and evolution operators
▲윤종걸=Defect Effects on the Phase transition of ferroelectric $NaNO_2$
▲강위생=전자의 기여를 고려한 광자선 선량분포의 계산방식과 그 결과에 대한 고찰
▲박인호=배추 엽록체의 전자전달 계활성과 엽록소 형광에 미치는 구리이온의 억제효과
▲이해복=한국산 홍조 지누아리과 식물에 대한 분류학적 연구
▲진창덕=무우 유식물의 발달에 미치는 triacontanol의 효과
▲강호성=근세포 융합과정에서의 단백질 합성에 미치는 수종, 융합 억제제의 영향
▲이영섭=대장균의 세포내 단백질 분해 효소들에 관한 연구
▲김용석=포유동물 세포내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의 재조합된 내면항원 유전자 발현 및 조절에관한 연구
▲김규중=Pleurotus Ostreatus의 lignin 대사에 있어서 Polyphenol oxidase 와 glucose oxidizing enzyme 들의 역할
▲김범철=An Ecological Study of Phytoplankton in Lake Soyang
▲김향숙=아밀로오스와 아밀로펙틴이 묵의 텍스처에 미치는 영향
▲장백경=멸치젓의 숙성과정중 지방질의 변화와 항산화능
▲구재옥=한국 여성의 단백질 및 칼슘섭취가 단백질 및 칼슘대사에 미치는 영향
▲정혜원=Polyethylene Terephthalate Film의 표면 Energy 변화에 따른 세척성

◇공학박사

▲최부혁=형태-공간, 시간의미와 커뮤니케이션에 의거한 건축디자인 방법론에 관한 연구
▲김성균=$Fe_{40}Ni_{40}P_{14}B_6$ 및 $Fe_{80}Si_8B_{12}$ 비정질합금에서 결정의 핵생성과 성장기구에 관한 연구
▲김원태=급속 응고시의 열전달과 응고조직에 대한연구
▲임태홍=Ti 및 Nb가 급저탄소강의 연속 어닐링 집합조직에 미치는 영향
▲고상근=정4각형 밀폐공간내의 비정상 자연대류에 관한 연구
▲김석현=승용차 차체구조모델의 진동 및 소음 특성에 관한 연구
▲송병무=투명 PLZT 세라믹스의 제조 및 특성에 관한 연구
▲류동일=Formation of Cyclic oligo (ethylene Terephthalate) and Its Effect on the Crystallizatio of poly (ethylene Terephthalate)
▲조재환=P(VDF-TFE)와 P(VDF-HFA)의 블랜드의 상용성과 압전성
▲오형재=불확실한 정보하에서의 경쟁적 출하자간의 미분게임
▲황순모=중성 빔 입사 장치의 음이온원 개발에 관한 실험적 연구
▲우형주=SNU 1.5MV 탄뎀반데 그라프가속기의 교정실험 및 PIXE분석에의 이용
▲박철환=충격식 착암기의 천공속도와 암적파쇄에 관한 연구
▲양형식=암반구조물의 설계를 위한 수치해석의 기초연구
▲김정호=2차원 전기비저항 탐사자료의 역산
▲원충연=서어보 운전을위한 전류형 인버터-3상유도전동기 시스템에 관한 연구
▲전태원=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의한 유도전동기 구동시스템의 최적이득에 관한 연구
▲김영철=생체시스템을 위한 적응제어에 관한 연구
▲김재철=전력계통의 중장기 안정도 해석에 관한 연구
▲염동홍=비최소위상 시스템의 성분분해에 의한 inverse 필터에 관한 연구
▲김종환=비최소위상 시스템에 대한 직접 극배치 PID 자기동조기 및 적응 제어기에 관한 연구
▲권혁철=자연언어 처리를 위한 인식문장의 형식논리 표현
▲공인영=3차원 물체에 작용하는 동 유체력의 시간 영역해석
▲김성득=탄성 및 탄소성 지반위에 놓인 원형평판의 유한요소해석
▲강원호=부분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보의 전단거동에 관한 실험적 및 이론적연구
▲임성순=나선형 곡선부재의 동적해석
▲임종석=말뚝의 부주변 마찰력에 관한 모형실험 연구
▲설재훈=버스 우선 신호의 평가 및 적용에 관한 연구
▲장 덕=혐기성 소화의 온도 영향에 관한 동력학적 연구
▲현인환=배수관망의 최적설계법에 관한 연구
▲황희연=도시중심부의 토지이용 변화에 대한 생태학적 해석에 관한 연구

◇농학박사

▲손두식=Populus alba × Populus gindulosa F_1 및 교배양친수의 유전적 특성과 생장에 관한 연구
▲손시환=닭에 있어서 G, C-Banding 형태에 의한 염색체 표지인자에 관한 연구
▲장영호=Lactobacillus caseibacteriophage의 흡착세포 흡착특성에 관한 연구
▲신일선=농업용 저수지의 다목적 이용을 위한 용수적정배분에 관한 연구
▲김종욱=철근콘크리트 원통형 쉘 구조물의 최적 설계에 관한 연구 -저수지 취수탑을 중심으로-
▲김기황=인삼해충, 큰검정풍뎅이 및 참검정풍뎅이의 생태적 특성과 발생요인에 관한 연구
▲김창진=Streptomyces gannmycicus가 생산한 신항균성물질특성과 Botrytis cinerea 균에 대한 효과

◇법학박사

▲조준현=부작위범의 범죄체계론에 관한 연구
▲이영희=근로계약의 법적 성격과 제약구조에 관한 연구
▲전순신=국제무역에 있어서의 일반특혜제도에 관한 법적연구
▲정귀호=부양에 관한 연구 -한국부양법리의 내포와 외연-

◇교육학박사

▲이창국=연암 박지원의 교육사상 연구
▲이주운=중등학교 체육주임의 지도력 유형과 그 적응성에 관한 연구

◇수의학박사

▲김상균=랫드에 있어서 Salmonella 속균에 의한 Typhoid nodule 발생의 병리조직학적 연구

◇약학박사

▲이형규=Aconitum 속 식물의 diterpene alkaloid에 관한 연구

◇의학박사

▲김영호=가령과 뇌중증가가 안대뇌피질 각회봉부 및 구벽부의 세포구축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손봉기=임신토끼의 태자혈액 및 양수로의 Li^+ 이동에 미치는 bromocriptine 의 영향
▲이정렬=심근세포내 칼슘이온 활동도에 미치는 vanadate의 효과
▲최윤백=기니피그 위 평활근에서 K-경축 및 Na^- 제거 경축에 관한 연구
▲김상현=Sprague-Dawley계 흰쥐의 재생간조직및 간암유발 자극을 받은 증식간조직 중 transglutaminase의 동태에 관한 연구
▲윤형구=저산소심장의 산소재공급에 따른 심근손상에 있어서 항산화제의 보호효과
▲김종순=Praziquental 투여에 의한 실험적 간흡충증성 간경변의 변화양상
▲박영태=B형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간질환에서 혈청 B형 간염바이러스 DNA의 검출양산
▲최상전=비갑상선 질환에서 혈장 유리지방산이 T_4의 T_3 전환에 미치는 효과
▲정준기=실험적 심근 경색증의 재관류에서 칼슘 길항제의 심근 보호효과에 관한 연구
▲윤휘중=림포킨 활성살해세포 (LAK) 와 산화미토겐 활성살해세포 (OMAK) 의 세포증식 반응 및 세포독성의 비교 연구
▲송영진=다중불포화 지방과 Vitamin E 함유식이가 흰쥐 1,2-Dimethylhydrazi 유발 대장종양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적 연구
▲양대현=인체 암 유래 세포주들을 이용한 시험관내 항암제 감수성 검사에 관한 실험적 연구
▲장중한=혈청 Estradiol 농도의 지수함수적 증가율과 체외수정의 성공율에 관한 연구
▲주권량=사람의 황체세포 배양시 LHRH가 progesterone 생성에 미치는 영향
▲이애현=황정자 황체가 체외수정 및 배아의 자궁내 이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희주=토끼심방근 및 혈관 평활근에세의 Na^+/Ca^{2+} 교환기전에 관한 연구
▲노정일=토끼적출 우심방의 박동수에 대한 higenamine의 효과
▲안병해=한국소아의 항갑상선 자가항체 양성율에 대한 연구
▲이광호=선천성 간질쥐에서 청각성경련에 대한 노르아드레날린성 조절인자에 관한 연구
▲위봉애=토끼 폐동맥에서 Higenamine의 3H-Norepinephrine 유리에 대한 효과
▲정민영=가토에서 약물의 국소투여가 혈류에 미치는 영향 -광혈량계적 측정-
▲조대윤=심정지후 재관류액의 온도변화에 따른 심근보호 효과에 관한 실험적 연구
▲임승평=말초감각 신경자극이 동맥혈압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은식=Agarose gel 에서 Calcium oxalate 및 Calcium phosphate 결정형성 억제제의영향
▲진용한=임신중 알콜경구투여로 인한 신생토끼의 시신경 형성부전증에 관한 연구
▲김대영=역동적 전산화 단층촬영법을 이용한 급성신부전증의 조영상 및 시간-밀도곡선의 변화에 관한 실험적 연구
▲임태환=자기공명 영상시의 유체현상에 관한 실험적 연구
▲박청희=혈액의 자기공명 영상에 관한 실험적 연구
▲오용석=미만성 폐포저산소증시 Nitroglycerin 과 Sodium nitroprusside의 심폐혈역학적 영향에 관한 실험적 연구
▲문현수=이소푸렌의 마취농도에 따라 베라파밀이 개의 심혈관계에 미치는 혈역학적 작용

◇치의학박사

▲박인출=중령에 따른 흰쥐 악관절 원판의 변화에 대한 주사전자 현미경적 연구
▲장기완=잇솔질 교육의 집단교육 방법별 효과에 관한 실험적 연구
▲이석근=(1,3,6-^{3}H)-Benzo (a) pyrene 도포가 햄스터 협낭의 발암효과에 관한 자기 방사법적 연구
▲김현순=경부고정 Headgear 사용시 안면 두개골의 변위에 관한 장력 계측법및 유한요소법적연구
▲김종렬=타액선 종양의 Lectin결합에 관한 면역조직 화학적 연구
▲정필훈=형광영상 녹화법에 의한 악관절 내장중에 대한 진단과 외과적 처치에 관한 임상적 연구
▲김용란=한국인의 측두하악장애에 대한 역학적 연구
▲홍찬의=Periaqueductal gray가 구강내 유해자극으로 야기되는 동통반응에 미치는 영향
▲백성기=도재 전장 주조관에 사용되는 도재의 색차에 관한 실험적 연구
▲조성암=금속 박막이 치과용 합금과 도재의 화학적 결합에 미치는 영향
▲고 강=악관절 기능장애 환자의 임상적 방사선학적 소견에 관한 비교연구

◇보건학박사

▲김덕성=정년퇴직 시기에 따른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상태변화에 대한 비교 분석 연구
▲김진원=농어촌 주민의 매약자가 수진행위에 관한 연구
▲이두호=도시폐기물 자원화에 관한 연구
▲정영일=우리나라의 사회경제개발 수준과 의사인력공급에 관한 연구

87년 後期졸업생 6백73명 同門으로 入會 (學士 2백2명 에

새會員名單

學士

◇인문대학

▲국문＝정경훈 조관자 조미숙 최용석 조철우 권해만
▲중문＝손재호 이강재 김종섭
▲영문＝이은옥 박형민
▲불문＝김유경 강형근 김지영 김영환 조능희
▲독문＝강인호 오순표 최경렬 황명주 이승숙 송병승
▲언어＝김종윤 이근주
▲국사＝김아경 김해숙 백영란 이미동 이영진 이태섭 배성준
▲동양사＝문정희 김주명
▲서양사＝김상용 홍정현 박일태 박홍로 손주은 육동인 추은호 손석구 이상기
▲철학＝서정형
▲종교＝김상진 신광식 강형철
▲미학＝김자봉 김학수 이재림
▲고고미술＝강희정 양영주 유종식

◇사회과학대학

▲정치＝기혁도 남원직 박두식 김영빈 한성렬 나성수
▲경제＝김대식 배용철 이종현 주진우 임상혁 강성수 권구훈 신현준 이랑희 김병수 임영탁
▲국제경제＝김진일 최계영 유종환 이재성 김상식 류재덕 박 철
▲사회＝구현지 김귀옥 방해란 이병현 진병태 홍승관
▲인류＝마목년 원성연
▲심리＝윤여경 김진수
▲지리＝김대영 정운용 이정도 조남제 최낙민
▲사회복지＝정원오 최광호

◇자연과학대학

▲수학＝김종아 이인 이찬서 김봉수
▲계산통계＝손광채 이석균 정원규
▲물리＝김후식 원준식 이영진
▲화학＝김용만
▲식물＝정상옥 최국태
▲동물＝이상철
▲대기과학＝김종균
▲지질과학＝신동혁
▲해양＝신영범 김진곤

◇가정대학

▲의류＝황 순

◇경영대학

▲경영＝김재환 윤장희 이권철 이정인 이형오 김현칠 이풍희

◇공과대학

▲공업화학＝소재천
▲산업공학＝안성은 오종식
▲무기재료＝강지영
▲화학공학＝배영훈 허 섭

◇농과대학

▲농학＝김명권 김육곤 이영상 강남권 허현철
▲원예＝전욱휴 윤여찬 이기병
▲임학＝오세영 박종호 권기일
▲임산가공＝이승기 류종렬 오성광 이준엽 조중연
▲식품공학＝구현서 김인호 김영호
▲농경제＝문상섭 이용준 조일현
▲축산＝김진수 문홍길 윤광근 최병국 황윤석 박용순 김성은 류종희 이철호
▲잠사＝유양원 전재우
▲식물병리＝서정아 윤수환
▲응용곤충＝윤난희 이종수
▲농업교육＝김상우
▲농업토목＝박용선 정창수
▲농가정＝김민자 강미숙
▲농업교육＝김규태
▲농촌지도＝김진영 이태헌
▲조경＝강은미 윤인숙 이상문 권광영

◇미술대학

▲서양화＝전선영
▲응용미술＝김재훈

◇법과대학

▲법학＝여현호 이창희

◇사범대학

▲교육＝박현자 박현준
▲국어교육＝강영임 조우열 김주환 김형주 손태도
▲영어교육＝류성용 정애란 최덕진
▲불어교육＝임화민
▲사회교육＝배재희 남중규
▲지리교육＝박영준
▲국민윤리＝권경순 서기남 윤건영
▲수학교육＝한수태
▲물리교육＝김은경 심재헌 차성태 전순영 류상호 박경순

碩士

◇문학석사

▲국문＝김광조 유국환 이의춘 이지영 정재찬 차원현 채호석 정숭의 이은자 정운채
▲영문＝강종택 김승순 김혁근 서광원 이영미 조영미 천순미 김진우
▲불문＝김정석 황준성 이규현 김한식
▲독문＝권미애 김성현 송희옥 윤순식 신환중 고영탁
▲언어＝유영기
▲국사＝전덕재 구산우 이익주 박국상
▲동양＝최진묵 하원수
▲서양＝은은기 이진희
▲동양철학＝김성태
▲서양철학＝김재기 한상우
▲미학＝박상혁 유영모
▲고고미술＝이성주 이영훈

◇정치학석사

▲정치＝강석진
▲외교＝김인녕 임대윤

◇경제학석사

▲경제＝이재하 정동철

◇문학석사

▲사회＝강인철 김현숙 백욱인 이경숙
▲인류＝정채성 이종인 한정우
▲심리＝윤희봉 이장호 최미례 이석재
▲지리＝백인기 이한방
▲사회복지＝김정화 최원규
▲신문＝김희진 윤석민

◇이학석사

▲수학＝이종룡
▲계산＝김완평 한혁수
▲통계＝문중양
▲물리＝박태호
▲천문＝천무영 김봉규 손도식
▲화학＝박태운 유지영 임광수 최길배 성원민
▲식물＝조 경
▲미생물＝박성주
▲지질＝이석훈
▲해양＝이호일 최현용

◇가정학석사

▲가정관리＝김경희 이혜선 최연실

◇경영학석사

▲경영＝김영재 김용진 김진헌 박찬원 박철순 방승욱 신현권 양동석 임재택 조진수 홍철규 서진영 조이연 마아틴 정근탁 황규붕 김희동 이승희 강성국 고세훈 이호성 조인균 이상영 고연욱

◇공학석사

▲건축＝박병욱 이중근
▲공업화학＝김인수 김정환 노갑수 정경희
▲금속공학＝정현규
▲산업공학＝김창곤 김선희
▲섬유공학＝김상현 문석기 정승훈 기영철
▲유기재료＝이우형
▲원자핵＝김종환 송용만 신운철
▲자원공학＝이경주
▲전기공학＝김봉희 이병훈 이임택
▲전자공학＝정수환
▲토목공학＝황영철 김근택
▲도시공학＝권용성 부창렬
▲화학공학＝이종욱
▲제어계측＝윤만철
▲전자계산＝오희수

◇농학석사

▲농학＝최용환
▲원예＝김태준 이필주
▲임학＝이준우 이승규 공영호 김경하
▲축산＝김대성 김영배 주영철 송상택 최화식 신영수
▲식물병리＝정난숙
▲농업토목＝전건영
▲농가정＝김면선 정금희 권일남
▲농업교육＝권일남 조순로
▲생태조경＝양안식

◇미술학석사

▲동양화＝조순호 한정수
▲조소＝윤영석 장준문 김주호 도홍록 배형경
▲공예＝박수진 염미란 이재민
▲산업미술＝유부미
▲회화＝이태승

◇법학석사

▲법학＝김재용 안재영 윤희선 음선필 김현수 송찬엽 송현진 최상열 신인식 한만수 구만회 손창열 김승대 신상한

◇교육학석사

▲교육＝차미란 박영희 송기창 오윤심 이승원 최광만 신혜숙 최소영 김재성 성연욱 고재혁
▲음악교육＝최금뢰 강미숙 권덕원
▲산업교육＝조규보
▲국어교육＝김문규 맹주원 최영환 하지영 김국회 이종덕
▲영어＝손근원 원영철 최영자 신인수
▲불어＝오만호 정준동
▲독어＝박건용 윤인섭
▲일반사회＝이동언 허인숙 이종호 유의식 마희창
▲역사＝강희표 김환길 최상훈
▲지리＝조성옥 최재헌 김남형 서태열 탁송일
▲국민윤리＝권순환 권혁환 김태훈 노희상 박병기 박찬구 추병완 김경진 박갑수 이기동 방혜영
▲수학교육＝강문봉
▲물리＝곽윤항 류재혁 박성식 박중서 박현주 박효기 조봉제 김재순
▲화학＝전효정
▲생물＝고효선 김기완 김윤옥 김종희 김진호 김혜민 서평웅 손영희 양재철 이덕기 권희정 윤경숙 이병언
▲지학＝이미현 허 식
▲체육＝오용화 이성재 장재봉 김평섭

◇수의학석사

▲수의＝최준표 김진상

◇약학석사

▲약학＝김호순 이성우

→

▲嚴玉今(39년 師大卒·曉星女大명예교수)‖지난 86년 3월 私財1억3천만원을 효성여대에 출연, 젬마장학재단을 설립한 嚴동문은 최근 효성여대 동창회장에 被選.

▲趙炳華(43년 師大卒·本會理事·詩人)‖8월 13일 中央大 財團인 中央文化學園理事會에서 理事長職務代行에 선임되었다.

▲李鍾聲(44년 法大卒·忠南紡績(株)회장)‖8월 4일 忠紡이사회에서 경영합리화를 위한 조치로 大成毛紡을 흡수합병키로 한 결의에 따라 합병계약을 체결.

▲徐燉珏(46년 城大法文學部卒·慶熙大名譽교수)‖최근 국민대 교수에서 경희대 명예교수로 추대되었다. 徐동문은 學術院正會員이다.

▲安炳珪(47년 齒大卒·母校齒大교수)‖최근 주거를 정릉에서 돈암동으로 移任。 전화 922-6510

▲朴漢相(48년 文理大卒·本會理事·國會議員)‖최근 서울지검 남부지청앞에 법무법인 남부종합법률사무소를 개설。 전화 633-0302~3번。

▲金商俊(49년 師大卒·本會理事·文敎部次官)‖8월 6일 江原道敎育監에서 문교부차관으로 榮轉。

▲張瑛(51년 工大卒·建國大産業大學院長)‖8

▲宋榮喜(52년 工大卒·太平特殊纖維(株)社長)‖7월 24일 大農그룹人事조치에 따라 大農 清州工場주재 부사장에서 태평특수섬유社長으로 榮轉。

▲黃哲秀(51년 師大卒·本會理事·前京畿道敎委敎育監)‖최근 경기도교육감직을 임기만료로 사임하고 민정당 경기 제4지구당 위원장에 취임。 전화 안양2-0020·3600번。

▲姜信浩(52년 醫大卒·本會副會長·東亞製藥(株)會長)‖7월 28일 제1회 少年少女家長돕기手記公募展示상식에서 장학금 2천만원을 전달。

▲丁明植(55년 工大卒·本會理事·浦項製鐵社長)‖7월 28일 浦鐵理事會에서 社長에 선임되었다。 丁동문은 부사장직을 맡았었다。

▲吳相壕(55년 工大卒·湖南탱카(株)常務)‖7월 23일 여의도 럭키금성트윈타워 西館28층으로 社屋移轉。 전화 787-6616

▲車河淳(56년 文理大卒·西江大교수)‖7월 31일과 8월 1일 이틀간 경기 利川 유네스코청년원에서 열린「西洋史연구 워크숍」에서 유네스코위촉으로 1년간 진행해온「西洋史學의 수용과 발전에 관한 연구」를 발표。

▲愼鏞來(56년 師大卒 本會理事·馬山東中學校長)‖최근 晋州中學교장에서 마산동중학교장으로 轉補。

▲金榮鎭(57년 農大卒·本會理事·韓國農村經濟研究院長)‖7월 28일 뉴질랜드 농업시찰을 마치고 귀국。

▲安秉曄(58년 工大卒·新邦電子(株)社長)‖8월 1일 해태그룹인사조치에 따라 신방전자(주) 사장에 선임되었다。 安동문은 東洋物産사장이었다。

▲金 憲(58년 法大卒·韓國外國語大교수·韓國國際政治學會會長)‖8월 20일~21일 서울쉐라톤 워커힐호텔에서 同學會주최「韓半島통일문제의 再照明」국제학술회의를 개최。

▲南載熙(58년 法大卒·本會理事·國會議員)‖8월 7일 민정당 정책위원회 의장에 임명되었다。

▲沈明輔(58년 法大卒·本會理事·國會議員)‖8월 7일 민정당 총재비서실장에 임명되었다。

▲柳時永(59년 工大卒·本會理事·韓國動力資源研究所採炭機械化事業團本部長)‖지난 6월 5일자로 한국동력자원연구소 광산보안기술연구실장에서 동연구소 채탄기계화사업단 본부장으로 영전。

動靜

이 欄은 同門들의 동정을 全회원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職場을 옮기셨거나 職位의 변동을 비롯, 개인의 활동 및 업적에 이르기까지 보다 상세하게 알리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읍니다. 사진과 함께 記事를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읍니다. 많은 이용있으시길 바랍니다. 電話로 통보해 주셔도 됩니다.

電話 : (702) 2233-5

▲李祺周(59년 法大卒·駐아일랜드大使)‖7월 27일 정부발

사학위를 취득。

▲尹亨遠(60년 師大卒·忠南大교수·韓國敎員敎育研究會長)‖8월 4일 한국교육개발원강당에서「한국적 敎師像정립을 위한 교원정책의 좌표」를 주재로 세미나를 개최。 尹동문은 교육대학원동창회장을 역임。

▲金埈五(61년 文理大卒·文學評論家·釜山大교수)‖최근 문학에서의 시간론을 현상학적으로 고찰한 한스·마이어호프의「文學과 時間現象學」을 三英社刊으로 飜譯。

▲金在澈(61년 法大卒·清州地方法院長)‖8월 10일 대법원인사조처에 따라 濟州지방법원장에서 청주지방법원장으로 轉補。

▲金現坤(61년 法大卒·駐자이르大使)‖7월 27일 정부발령에 따라 駐佛公使에서 주자이르大使로 榮轉。

▲張基五(61년 商大卒·銀行監督院副院長補)‖최근 은행감독원 여신관리부장에서 부원장보로 昇進。

▲金錫鉉(62년 商大卒·駐아틀란타總領事)‖7월 17일 정부발령에 따라 외무부영사교민국장에서 주아틀랜타총영사로 취임。

▲金宗學(62년

西鐵鋼을 법인체인 (주)동서철강으로 발족。

▲玄鴻柱(63년 法大卒·本會理事·國會議員)‖8월 1일 민정당 제2事務次長에 임명되어 사무처의 선전국, 국제국등 대내외 홍보업무를 관장。

▲金鼎九(63년 師大卒·本會理事·大韓出版公社사장)‖7월 17일 종로구필운동174(前인도대사관)로 社屋移轉。 金동문은 10월 1일부터 CBS라디오방송강좌「88화려고사60일작전」을 매일밤 11시부터 맡는다。

▲崔炳喆(63년 商大卒·本會理事·(株)美都波社長)‖8월 1일 大農그룹의 임원인사조치에 따라(주)미도파 부사장에서 社長으로 昇進。

▲李在淑(63년 音大卒·本會理事·母校音大교수)‖최근 서울바로크합주단의 미국 주요도시 순회연주에서 李동문이 가야금연주자로 협연한 창작곡「도드리」가 음악평론가들에 의해 호평을 받았다。

▲金柱演(64년 文理大卒·文學評論家·淑大교수)‖최근 民音社刊으로 볼프강·보르헤르트의 소설·詩를 번역한「이별없는 世代」를 出刊。

▲宋哉憲(64년 法大卒·大邱高法部長判事)‖8월 10일 대법원인사에 따라 서울민사지법부장판사에서 대구고법부장판사로 昇進。

▲鄭鏞仁(64년 法大卒·大邱高法部長判事)‖8월 10일 대법원인사에 따라 서울지법부장판사에서 대구고법부장판사로 昇進。

▲李東洛(64년 法大卒·大邱高法部長判事)‖8월 10일 대법원인사에 따라 대구지법부장판사에서 고법부장판사로 昇進。

▲安文泰(64년 法大卒·釜山高法部長判事)‖9월 1일 신설되는 釜山고법부장판사에 승진。 安동문은 서울형사지법부장판사였다。

▲尹載植(64년 法大卒·光州高法部長判事)‖8월 10일

▲朴景賢(68년 師大卒·警察大學교수)‖최근 현대국어에서 공간개념어들의 의미를 분석한「現代國語의 空間概念語研究」를 한샘에서 出刊。

▲金璟麟(70년 行政大學院卒·詩人·韓國新詩學會회장)‖8월 12일 뉴욕에서 개최된 제10차 세계시인회의에 참석하고 귀국。

▲安建爀(71년 工大卒·國土開發研究院首席研究員)‖최근 2년 임기의 건설부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全誠煥(72년 音大卒·聲樂家·曉星女大音大學長)‖8월 17일 오후 7시30분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된「슈만 아벤트」에서 熱唱。

▲李鍾贊(72년 行政大學院卒·本會副會長·國會議員)‖7월 25일 백범회관에서 白凡金九선생기념사업회가 개최한 제20회 白凡강좌에서「대한민국임시정부의 法統性」이라는 主題로 演說。

▲趙成憲(74년 行政大學院卒·京畿道地方公務員敎育院長)‖7월 26일부터 8월 10일까지 日本·台灣·싱가폴등 동남아 7개국 공무원교육제도에 대한 비교시찰을 마치고 귀국。

▲金世忠(76년 法大卒·辯護士)‖최근 法務法人 韓美合同法律事務所를 중구 남대문로2가 118에 동문 변호사와 開設。 전화 753-0371

▲金基眞(76년 法大卒·辯護士)‖최근 법무법인 韓美合同法律事務所를 중구 남대문로2가 118에 동문변호사와 개설。 전화 753-0371。

▲黃鶴來(76년 環境大學院卒

87년도「VE大賞」受賞者 徐柱仁 社長

同門을 찾아서

이번 號의 취재대상은 韓國能率協會가 매년 施賞하고 있는 VE大賞(價値大賞)의 87年度 受賞者로서 현 三星電氣㈱ 代表理事職을 맡고 있는 徐柱仁동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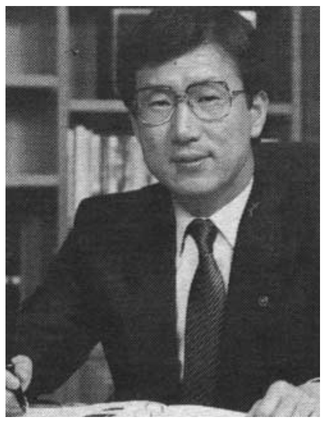
—VE운동이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낱말인데 그 참뜻은。

『한마디로「發想의 轉換」을 말합니다。제품을 더 싸게 만드는 것은 물론 같은 제품이라도 제조경비를 줄이는 技法을 말하죠。곧 外部 經營與件變化에 구애됨이 없이 구성원의 組織的인 노력에 의해 input을 최소화하고 output을 최대화하자는 것입니다。原價節減을 위한 종전의 TQC방식이 製造工程上의 현실적인 문제해결방식이라면 VE는 製造設計에서부터 물품구매、공정관리、서비스 등모든 根源的인 문제에 협조하여 각 단계에서의 코스트를 최저로 하는 것이죠。때문에 TQC보다 한 발 앞선 단계라고 말할수 있읍니다』

—그러한 VE운동에 의한 實質的인 效果라면。

『86년의 경우 賣出額의 7%인 1백50억원의 원가절감을 달성했읍니다。이같은 원가절감은 원가구조개선을 통한 國際競爭力의 提高로 매출신장에 기여함은 물론 技術力의 향상에도 이바지하는바 크지요。또 앞으로도 확산되는 保護貿易主義의 추세나 엔貨강세、원貨切上등 외부의 환경적 변화가 企業經營에 미치는 영향 및 Life-Cycle이 점점 짧아지는 電子製品의 特性에 비추어 볼때 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하나의 對應策이 되기도 합니다』

徐柱仁동문은 1964년 工大 纖維學科를 졸업한 이래 줄곧 三星그룹에 몸담아 온 三星맨이다。그동안 졸업과 동시 入社한 第一毛織에서부터 출발、第一合織(理事)、三星物産(常務)、三星半導體(專務) 등을 거쳤고현재는 三星電氣㈱代表理事로 있다。그간 日本・독일・영국・스위스・이태리 등지에서 硏修를 쌓았었고、日本에서 三星JAPAN의 代表取締役을 2년간 맡기도 했다。第一合織에재직할 때는 열에너지절감운동 및 공장새마을운동을 적극 전개、회사가 대통령표창과 TQC大賞을 받는데 공헌했다。그동안 徐동문의 발자취를 보면 비록 출발은 毛織에서 했지만 合織・重化學・光通信 등 모두가 새分野의 最尖端에서 활동함으로써 새로운 것에 對한 끊임없는 開發意志와 創造性을 엿보게 한다。



—經營方針이라면。

『우선「일할 맛 나는 직장만들기」입니다。여기에는 基本的인 근로자의 근무환경개선、후생복지 향상은 물론그 분위기를 통해 愛社心의 향상、업무능률의 倍加、나아가서 經營利益의 확대라는 경영전반에 걸친 사항이 내포되어 있어요。때문에「일할 맛 나는 직장」을 만드는 것이 經營을 잘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또 한가지는 우리나라의 그간의 部品事業을 보면 부품이 각 파트別로 나뉘어 생산되어 왔는데、점차 技術의 高度化로 인해 이제는 部品도 파트別이 아닌 시스템을 요구하는、곧 메카트로닉스分野로의 영역확대가 시도되고 있죠。이에 따라 復合部品으로서의 컴퓨터주변기기、정밀기기、자동화설비 등에의 제품영역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原價절감 1백50억원
국제경쟁력 提高에 크게 寄與

—經營人으로서 部品業界를 展望한다면。

『현재 우리의 현실은 部品 및 素材의 對外依存度가 높고 外國系 기업의 한국내 生産比重 또한 높습니다。그런반면 우리의 입장은 국내기술기반이 취약하다고는 하나 產業政策上의 제반여건이 뒷받침되지 못한데다、市場開放政策과 사업영역의 획일적 구분이 사실상 矛盾되는 문제점이 있읍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部品國產化率을 높여야 하는데、그러기 위해서는 기업규모에 따른 천편일률적인 규제나 品目別의 막연한 구획정리보다는 핵심기술 혹은 기술집약적인 것등 技術水準에 따른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徐동문은 각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라성같은 先・後輩동문을 두고서 미약한 자신이 同窓會報의 지면을 할애받는다는 것이 자못송구스럽다며 내내 겸손을 표한다。그리고서며욱 분발하라는 하나의 채찍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다짐。원만한 人間關係의 유지가 생활의 좌우명이고 클래식음악감상이 취미。

夫人 宋斗心여사와 2男1女。

…열린 日本纖維學會 세미나에 참석코 귀국。

▲朴哲俊(51년 美大卒・本會理事・彫刻家・서울教大교수)‖9월 26일 오후2시 서울교육대강당에서 回甲기념「현대미술교육」논총의 봉정식을 친지와 제자들에 의해 갖는다。

▲盧隆熙(52년 法大卒・母校環境大學院교수)‖이달 18일 오후6시 장충동소재 앰버서더호텔에서 제자와 후배들이 마련한 華甲기념논문집「國家發展과 公共行政」에 대한 獻呈式을 갖는다。

▲辛大用(57년 農大卒・國立農業資材檢査所)‖한국자유기고가협회 총무이사직을 맡아 9월 5일 한글학회회관에서 제1회 학술발표회를 개최할 예정。

▲金潤慶(57년 法大卒・本會理事・釜山高等法院長)‖9월 1일자로 신설되는 부산고등법원장에 光州고등법원장인 金동문을 8월 10일자로 轉補。

▲裵炳于(57년 法大卒・慶尙大교수)‖최근 단국대학에서 박사학위(노동법전공) 취득。

▲金永泰(57년 師大卒・本會理事・㈱에스・티・엠社長)‖7월 23일 여의도 럭키금성 트윈타워 東館 9~10층으로 社屋移轉。전화 785-5988。

…령에 따라 駐日公使에서 주아일랜드大使로 榮轉。

▲柳明集(59년 商大卒・本會理事・㈱大農社長)‖8월 1일 大農그룹 임원인사조치에 따라 (주)미도파 사장에서 (주)大農사장으로 轉補。

▲朴商勳(60년 文理大卒・一體民主黨정책심의회의장)‖최근 일체민주당의 창당과 함께 同黨정책심의회의장에 취임。

▲孔大植(60년 文理大卒・前文化放送解說委員・明知專門大교수)‖8월 22일 한양대학교에서「우리나라의 도시토지이용과 소유권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로 행정학박

…)‖7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서울미술관에서 여덟번째 西洋畫개인전을 개최。

▲金仁喆(62년 師大卒・大韓出版公社理事)‖최근 社屋을 종로구필동174(前인도대사관)로擴張移轉。전화 734-5825。

▲金源會(62년 醫大卒・釜山醫大교수)‖7월 20일부터 8월말까지 英國에 체류하면서 그래스고대학에 업무차방문한뒤 귀국。

▲沈載德(63년 農大卒・㈱東西鐵鋼社長)‖7월 1일자로 東

…대법원인사에 따라 사법연수원교수부장에서 광주고법부장판사로 昇進。

▲鄭宗鎬(64년 師大卒・유진종합개발㈱專務)‖최근 유진종합개발주식회사 전무로 취임。전화 762-2228。

▲權寧肇(65년 商大卒・本會理事・㈱雙龍精油 常務)‖최근 (주)기주산업 사장에서 (주)쌍용정유 업무상무로 轉任。

▲奉鍾憲(66년 文理大卒・氣象硏究所長)‖6월 15일부터 7월 2일까지 國際技術協力次 美國・카나다를 방문코 歸國。

▲陳成奎(66년 法大卒・光州高法部長判事)‖8월 10일 대법원인사에 따라 서울지법부장판사에서 광주고법부장판사로 승진。

…・國土開發研究院主任研究員)‖최근 시행된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에서「地域 및 都市計劃」技術士에 合格。

▲崔丞容(78년 音大卒・母校音大講師)‖8월 13일 세종문화회관소강당에서 비올라오케스트라연주회에서 지휘자로연주회를 개최。

▲全美映(78년 音大卒・피아니스트・韓國教員大學교수)‖8월 17일 오후7시30분 문예회관대극장에서 개최된「슈만 아벤트」에서 피아노를 연주。

▲洪森杓(78년 齒大卒・母校齒大조교수)‖7월 25일 美워싱턴소재 월터리드육군병원 병리연구소에서 1년간 口腔病理學연구를 마치고 귀국。

▲宋京顯(78년 環境大學院卒・國土開發研究院主任研究員)‖최근 시행된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에서「地域 및 都市計劃」技術士에 合格。

掲示板

結婚

▲金道昶(47년 法大卒。本會副會長・辯護士)‖8월 29일 오후1시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次男 容均군결혼。

▲洪起台(84년 法大卒・司法硏修院生) 동문과 朴珠賢(85년 法大卒・司法硏修院生) 동문‖9월 12일 오후1시 서울大學校同窓會館(5층)에서 結婚式예정。

▲李明奎(80년 工大卒・AM Co. 기획설계기사) 동문‖10월 18일 오후1시 서울大學校同窓會館(5층)에서 結婚式예정。

藥과 健康

健康교실 ⑥

洪 文 和
〈37년 藥大卒〉
母校명예교수

藥의 過信은 오히려 藥禍를 불러

1

옛날 생각하기에는 요새 사람들은 옛날과 달라서 과학적이며 합리적이기 때문에 모든일을 신중하게 따져서판단할 것으로 생각된다. 남이 좋아한다고 무턱대고 믿는 따위의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을성 싶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틀림없는 일은 의심하고 따지고 하면서도 남이 좋아한다고 하면깊이 따져보지도 않고덥석 믿는 경향이 있다.

論語책을 들쳐보면 나라의 李康子라고 하는 분이 孔子에게 약을 보낸 귀절이 나온다. 일부러 정성으로보낸 補藥인데도 孔子는 받아두기만 하고 복용을 하지 않았다. "康子饋藥, 拜而受之, 丘未達不敢嘗" (강자가 약을 선사한 것을 공손히 절하면서 받아놓고 말씀하기를 丘 (공자님의 이름) 는 아직 그 약의 이치를 터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복용하지 못해죄송합니다). 2천 5백년전의 옛날인데도 공자는 아무 약이나 무턱대고 복용하지 않고 자기의 몸이나 병에대해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알수 없는병이 있다. 그런 때에는 먹어보아서는 안되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쓰지말아야 한다는 것인가를 날카롭게 판단하여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2

오늘날처럼 약이 발달된 시대에 약에 대한 니힐리즘에 빠져서 오로지 自然療法만을고집하는 것도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고 할수 있겠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사람의 병을고치게 하는 주체가 각자가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이라는 것은전혀 무시하고 오로지약만으로 건강을 회복또는 유지하려는 약의過信은 문제가 된다.

周易에도 비슷한 말이 「无妄」 卦에 나온다. 무망이란 뜻은 老子의 無爲自然의 道와도 비슷하여 자연의섭리에 순응하는 태도를 말한다. 가령 병이 생겼을 경우에 暴飮暴食이라든가, 過勞 또는勞心焦思 등에 의하여病이 생긴 것이라면 병의 원인을 제거하고정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치료법이 될것 아닌가. 그러나 병 중에는 왜생는 것인가를 알고 난 후에야 약을 복용하였던 것이다.

健康과 藥

洪 文 和
〈37년 藥大卒〉
母校명예교수

健康교실 ⑥

1

옛날 생각하기에는 요새 사람들은 옛날과 달라서 과학적이며 합리적이기 때문에 모든일을 신중하게 따져서판단할 것으로 생각된다. 남이 좋아한다고 무턱대고 믿는 따위의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을성 싶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틀림없는 일은 의심하고 따지고 하면서도 남이 좋아한다고 하면깊이 따져보지도 않고덥석 믿는 경향이 있다.

論語책을 들쳐보면 나라의 李康子라고 하는 분이 孔子에게 약을 보낸 귀절이 나온다. 일부러 정성으로보낸 補藥인데도 孔子는 받아두기만 하고 복용을 하지 않았다. "康子饋藥, 拜而受之, 丘未達不敢嘗" (강자가 약을 선사한 것을 공손히 절하면서 받아놓고 말씀하기를 丘 (공자님의 이름) 는 아직 그 약의 이치를 터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복용하지 못해죄송합니다). 2천 5백년전의 옛날인데도 공자는 아무 약이나 무턱대고 복용하지 않고 자기의 몸이나 병에대해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알고 난 후에야 약을 복용하였던 것이다.

2

오늘날처럼 약이 발달된 시대에 약에 대한 니힐리즘에 빠져서 오로지 自然療法만을고집하는 것도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고 할수 있겠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사람의 병을고치게 하는 주체가 각자가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이라는 것은전혀 무시하고 오로지약만으로 건강을 회복또는 유지하려는 약의過信은 문제가 된다.

周易에도 비슷한 말이 「无妄」 卦에 나온다. 무망이란 뜻은 老子의 無爲自然의 道와도 비슷하여 자연의섭리에 순응하는 태도를 말한다. 가령 병이 생겼을 경우에 暴飮暴食이라든가, 過勞 또는勞心焦思 등에 의하여病이 생긴 것이라면 병의 원인을 제거하고정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치료법이 될것 아닌가. 그러나 병 중에는 왜생

3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을까 놀라울 지경이다.

論語책을 들쳐보면 나라의 李康子라고 하는 분이 孔子에게 약을 보낸 귀절이 나온다. 일부러 정성으로보낸 補藥인데도 孔子는 받아두기만 하고 복용을 하지 않았다. "康子饋藥, 拜而受之, 丘未達不敢嘗" (강자가 약을 선사한 것을 공손히 절하면서 받아놓고 말씀하기를 丘 (공자님의 이름) 는 아직 그 약의 이치를 터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복용하지 못해죄송합니다). 2천 5백년전의 옛날인데도 공자는 아무 약이나 무턱대고 복용하지 않고 자기의 몸이나 병에대해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알수 없는병이 있다. 그런 때에는 먹어보아서는 안되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것인가를 날카롭게 판단하여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4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 좋은 약이라고 떠들어대고 또 그 약이 왜 좋은 것인가를 납득하기에는 아랑곳없이 먹어야 한다는 식이 되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5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6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7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8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9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10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11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12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13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14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15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16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17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18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19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20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21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22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23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24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25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26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27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28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29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30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31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32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33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34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35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36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37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38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39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40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41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42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43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44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45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46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47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48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49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50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51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52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53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54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55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56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57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58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59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60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61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62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63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64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65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66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67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68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69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70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71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72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73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74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75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76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77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78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79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80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81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82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83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84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85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86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87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88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89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90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91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92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93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94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95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96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97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98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99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100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101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102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103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104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105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106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107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108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109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110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111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112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113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114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115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116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117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118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119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120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121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122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123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124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125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126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127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128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129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130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131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132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133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134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135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136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137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138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139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140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141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142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143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144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145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146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147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148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149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150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151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152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153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는 약을 쓰지말고 자연적인 결과를보고 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154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약이라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런 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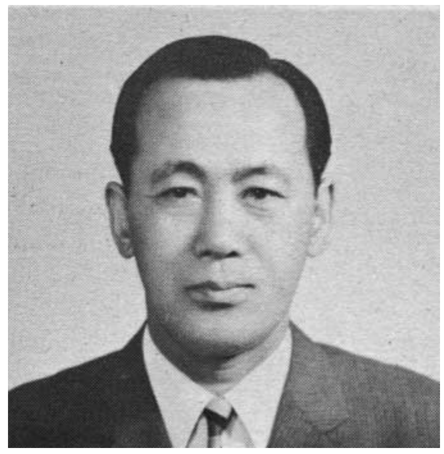
釜山시절의 판자교실

名譽教授칼럼

尹仁鎬〈前師大교수〉

20여년의 일본생활을 청산하고、1948년 가을에 그리운 조국으로 돌아오자마자 고향에서 麗順반란사건을 겪게되었다。이로 인하여 나로 하여금 就職을 서두르게 하던 중 내가 귀국했다는 소식만을 들은 당시의 全南大學의 金교수로부터 그의 후임으로 내가 추천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서、과거 日本大에서 같이 유학했을 때 그와 맺어진 깊은 友誼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어 무척 기쁘기도 했다。

그러나 어차피 就職을 할바에야 서울에서 하곺아서 나는 곧 서울에 올라와 日本大의 선배와 동기생의 주선으로 培材高等學校나 서울工大에 곧 就職이 가능했으나、이를 사양하고、몇개월 후에 서울師大體育科에 자리가 생긴 것을 기다렸다가 1949년 9월30일자로 助教授로서 강단에 서게 되었다。이렇듯 내가 굳이 서울師大體育科에 취직을 원했던 까닭은 다름아닌 우리나라의 체육발전에 주역이 되는 體育教師를 양성하는 기관에 종사함을 더 없이 큰 보람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다。그 이듬해인 1950년에는 6·25동란이 일어났으니、그 날은 일요일이라 議政府의 집에 있던 나는 안사람과 함께 6세 이하의 세 아이를 데리고 砲彈이 떨어지는 들판을 가로 지나가 道峰山中으로 피신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그 이튿날 下山하던 중 人民軍將校로부터 심문을 받을 때 나는 서슴치 않고 서울大學校 助教授란 身分證을 스스로 내보였던 것은 지금 생각해도 몹시 두려운 일이 아닐수 없었다。더구나 家屋이 全燒되었으므로 할 수 없이 의정부 동쪽에 있는 동마골이란 산골마을에서 피난생활을 하게되고 매토요일에는 徒步로 을지로의 師範大學으로 나가서 戰況과 學校事情을 살피게 되었는데、動亂으로 學內는 여지없이 혼란마비상태에 빠지고 學內에서는 학생들의 그림자조차 찾아보기 어렵게 되어 버렸다。그러던 중 9월경에 師範大學을 소위 인민위원회가 관장하고、그 책임자로 다른 사람 아닌 우리 體育科의 前教授였던、H란 자가 있었는데、그가 主宰하는 教授資格再審會에서 나는 K學長時에 취임했다는 이유로 教授資格이 박탈되는 동시에、앞으로의 식량배급도 못받게 되었다는 웃지못할 통고를 받은 일도 있었다。1951년 1월초순경에 大學과 함께 釜山으로 피난하여、서대신동의 山頂에 자리잡은 판자집교실에서 주로 理論講義를 하게되고、實技講義는 운동장이 없어서 전혀 못했으나、내가 담당한 맨손체조만은 구덕산 비탈에서、그래도 착실히 했으며、水泳도 장소가 好適해서 15일간이나 실시하기도 했다。그런데 이에 잊을수 없는 것은 「신선대」에서 水泳훈련에 참가한 학생들의 所行德分(?)으로 어두운 밤중에 天幕村의 女巡警을 찾아가서 정중하게 백배의 사과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일이다。또 이 동안에 나는 洛동강근방에서 들리는 砲聲으로 마음이 몹시 초조해졌을 때는 日本에의 密航을 기도하기도 했으나、돌이켜보면 그때 감행안했던 것이 천만다행으로 생각된다。1953년 10월경에 師範大學이 을지로의 교사로 돌아오고、또 1년후에는 용두동의 교사로 이사했으나、운동장은 모두 軍에서 사용하고 있었다。그래서 큰 운동장이 필요한 나의 講義는 東崇洞의 文理大 운동장과、현재의 成一中學校의 자리까지 가서 실시하게 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이를 잘 극복한 것은 오로지 講義에 대한 열정 때문이었다。이 무렵부터 體育教育的인 하나의 확고한 신념을 갖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는데、그건 다름아닌 「항상 健康의 垂範者가 되고 病故로 인한 休講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이리하여 약 8년을 무사히 지나다가 1960년 4월19일에 「青年의 피에 報答하라」는 플래카아드를 앞세운 教授團의 데모에 참가한 나는 끝판에 戰車와 마주쳤을 때 순간적으로 죽음을 각오한 바도 있었으며、또 이때의 학생데모에 있어 우리科의 兪在植군이 아깝게도 총탄에 쓰러진 사실도 도저히 잊지 못할 일이다。



> 缺講 없이 열정바친 후회없는 나날들
>
> 「平生体育」 著書와 훌륭한 弟子에 보람

그후 전국각대학에서 教授에 대한 불신문제가 야기되어 적지 않은 고난을 겪은 일이나、또 달리는 열차에서 떨어진 우리科의 崔宗洙군이 1개월동안이나 인사불성을 계속하다가 회복한 사실도 기쁜 하나의 추억이 아닐 수 없다。

1975년에 冠岳으로 옮긴뒤 停年퇴임시까지의 약 5년동안은 교직생활을 총정리하는 최종단계로서、마지막 연구활동으로 「平生體育」이란 著書를 완성하는데 심혈을 쏟았다。

더우기 退任日이 가까와짐에 따라 여태까지 맡아온 講義를 내주거나、마지막으로 연구실마저 내주게 될때는 당연한 일로 잘 이해하면서도 애착심 때문인지 서글픔을 참기 어려웠던 일이 잊혀지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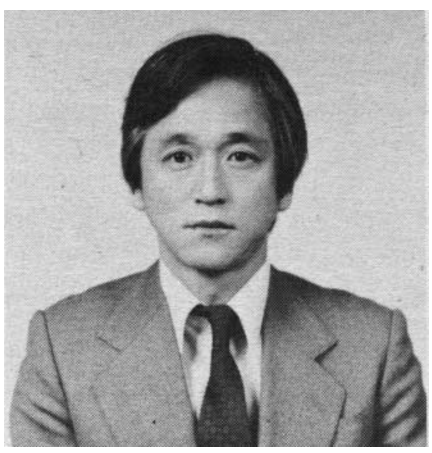
끝으로 나의 교직생활에 있어서 특기할만한 것이 있다면 부끄럽지만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病故로 인한 休講은 한번도 없었고、학생들의 성명은 교육방법상의 필요로 이를 의식적으로 잘 기억했고、科內의 인화단결에 진력했으며、심혈을 쏟은 체육지도법을 비롯한 다섯권의 저서는 지난날의 勞苦를 달래주기도 한다。더우기 오늘에 있어 훌륭하게 된 弟子들의 모습을 볼 때는 정말 교직생활의 참된 보람을 새삼 느끼게 한다。

이제는 退任時에 바랐던 體育館의 건립으로 체육환경도 한층 갖춰지고、특히 우리科교수들의 동태로 미루어 보아 앞으로의 보다 큰 발전이 기대된다。

隨筆 수필

大學의 방학

朴東奎〈62년 文理大卒 母校人文大교수〉



대학에는 방학이 있어 교수생활이 편하겠다는 말을 하는 친구들을 만날 때가 있다。

물론 회사에 다니면 며칠 휴가를 얻기도 힘들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더우기 공무원쯤 되면 더 바쁠 수 있고 몇개월씩 쉬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의 방학은 방학으로서의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방학에 집에서 쉬다는 생각을 바꾸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방학때가 되면 어느 교수나 그렇겠지만 충전의 기회가 된다。이 충전은 강의록 준비에서 처음 시발한다。일학기동안 가르칠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마련해야 하는 작업이다。

그것은 똑같은 낡은 노트를 들고 강의실에 들어섰을 때 느끼는 공포감을 맛보지 않고서는 이 준비가 얼마나 착실하고 꼭 거쳐야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기 어려울 것이다。

새 학기를 맞아서 새 노트를 들고 새로운 학설에 대한 조바심으로 앉아있는 학생들에게 들려줄 새로운 연구성과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다른 충전은 강의 문제를 떠난 개인적인 연구를 진행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교수는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도 지속화되어야 하는 것이라서 이를 게을리하게 되면 학문적 성과가 나아질 수 없는 것이다。그러니까 당연히 강의에 좇겨 새로운 관심사의 연구를 해낼 수 없던 부분을 재정리하고 연구를 방학동안이 가속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뿐만 아니라 자기의 관심분야 이외에 주변학문에 대한 검증도 적이 때에 해야하고、첨단적 연구이론도 섭렵하고、이를 차분하게 소화해내야 하는 것도 방학동안에 해야할 일이다。좀더 발전이면 방학동안에 미루어 놓았던 학술대회에 참석하는 일도 큰일중의 하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방학이 오히려 자기성장의 발판이 되기 때문에 대학에는 방학제도가 있는 것이다。학생들도 이 때를 맞아 학기중에 자기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을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해볼 자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항상 뜻대로 방학을 보내게 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다。그것은 한숨 돌릴 수 있는 안도감 때문에 자칫 나태해질 수도 있고 밀린 일을 정리하다 보면 새일을 개척한다는데 소홀해질 수 있다。

그러나 방학이 쉬는 기간이란 생각을 하고 교수를 부러워하는 친구들에게 나는 방학이 강의만 안한다뿐이지 책을 놓고 살수 없는 시간이란 사실을 일러 주고 싶다。

언젠가 퇴근길에 혼자 생각한 일이지만 그날일을 그날로 끝내고 직장문을 나설 수 있다는 것은 행복이다。대학은 그날 일을 그날 끝낼 수 없는 것이 오히려 마음을 언제나 긴장하게 하는 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本報구독신청은
702－2233으로

新刊 안내

※ 이 欄은 同門들께서 펴낸 新刊서적을 紹介해드리기 위해 마련했읍니다。새로 저술한 著書를 本報 편집실로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읍니다。

□ 自然主義文學論

— 姜仁淑著

56년 文理大출신의 女流文學評論家이면서 建國大교수로 金東仁小說에 나타난 文藝思潮로서의 자연주의를 프랑스·일본의 그것과 비교하면서 우리나라 자연주의의 독자적 성격을 구명한 著書。

20여년전「金東仁연구」로 碩士학위를 받았던 姜동문은 재작년 淑大에서 받은 박사학위 논문도 그 토대에서 쓰여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을만큼 한국자연주의 작가에 대한 연구가 심도있게 다루어져 있다。

李御寧(문학평론가) 동문의 부인으로 같은 길을 걷는 姜동문은 앞으로 廉想涉·玄鎭健·羅稻香순으로 개개작가와의 비교론도 쓸 계획이라면서 이 著書를 쓰기 위해 資料수집에 많은 애로를 겪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 朝鮮朝名家 題画詩鈔

— 李壽子著

56년 師大卒、東洋畫家로 활약하면서 圓光大 교수로 재직중인 李동문이 朝鮮朝의 歷代 文集중에서 畵讚을 위한 詩가 많으면서도 그 出典과 자료발굴에 많은 애로가 있음에, 주요한 詩文句에「註」를 주첨기록하여 書畵人과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꾸며낸 著書이다。

옛부터 東洋畵에는 畵讚을 위한 題詩가 성행、畵中에 내재된 意境을 한층 높여주면서 畵幅에 담긴 깊은 뜻을 더욱 함축있게 표현해 왔다。蘇東坡의「詩中有畵 畵中有詩」의 名言과 일치하는 것으로 예술성을 나타내는「詩、書、畵一致」라는 동양적 예술정신의 특수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編者는 조선조 한국화에 담긴 詩文의 出典과 작가약력까지 소상하게 소개하는 친절을 베풀고 있다。

〈藝賢舍刊 값6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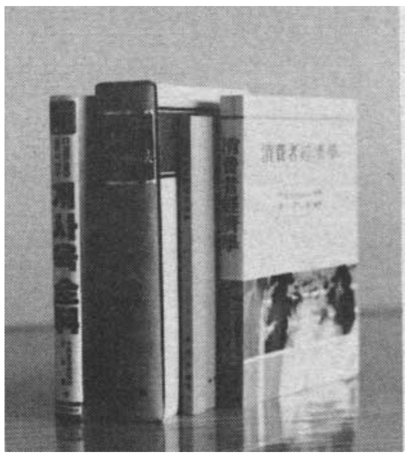
□ 韓國近代民族主義의 形成과 展開

— 愼鏞廈著

61년 文理大卒、母校 社會大교수로 재직중인 愼동문이 한국민족주의의 본질을 규명한 著書이다。

우리나라의 근대민족주의의 기원을 규명하고、갑신정변、갑오농민전쟁、韓末義兵운동、애국계몽운동、3·1운동등의 굵직한 사건에 나타난 민족주의의 본질을 사실에 입각한 입중에서 구체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서울大學校出版部刊 값3천원〉



□ 知的所有權法

— 宋永植·李相珵共著

69년 法大를 졸업한 宋永植동문(변호사)과 李相珵(73년 法大卒·서울市立大講師)동문 黃宗煥씨의 共著로 지난연말 개정된 著作權法을 비롯한 知的所有權法과 이와 관련된 國際條約 전반에 대한 解說書。

著者들은 이 책에서 特許法、實用新案法등 기술보호법과 意匠法 및 標識보호법 저작권법、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知的所有權法에 포함시켜 해설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와 외국의 學說과 判例를 소개하고 있다。

4편으로 구성된 이 책은 제1편은 총론、제2편은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을 외국의 판례와 함께 다루고 있다。제3편은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의 해설、제4편은 개정시행되고 있는 저작권법의 저작물、저작자、저작권의 제한、출판권、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을 상술하고 있다。

〈育法社刊 1만8천원〉

□ 消費者經濟學

— 金容姬編著

73년 家政大1회출신으로 美오하이오州立大學院에서 消費者經濟學 박사학위를 취득、母校 家政大에서 교수로 재직중인 金동문의 編譯書이다。

消費者經濟學은 消費者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분야로 이 책은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의식구조와 행동을 효율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회적으로 必讀書이다。

경제원론과는 달리 理論을 소비자생활에 적용하고 있어 이론과 실제의 간격을 제거하고 있을 뿐더러 그 適用過程이 논리의 비약없이 쉽게 풀이되어 있다。

5部로 나뉘어져 1部에서는 소비자경제학의 범위와 내용을、2部에는 소비자이론을 생활에 적용시키는 과정을、3부에서는 소비자 구매결정과 선택을 평가키 위한 分析을、제4부에는 市場構造에 따른 消費者損失의 문제、5부에서는 소비자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여러문제를 다루고 있다。B·B 이스트우드著書를 편역한 것이다。

〈比峰出版社刊 값5천원〉。

□ 개사육全科

— 趙休翼著

63년 獸醫大를 나와 中部家畜病院을 운영하고 있는 趙동문이 개의 품종에서부터 질병、번식、사육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친 문제를 소상하게 다룬 著書이다。

愛玩犬과 특수견의 세계적인 原種을 原色畵報로 다루면서 그 품종과 사육관리를 체계화시켜 다루고 있으며 高所得을 위한 특수견의 번식、사육、훈련、분양안내까지 취급하고 있다。

〈內外出版社刊 값7천원〉

□ 마음의 경제학

— 宋丙洛著

63년 商大를 나와 母校社會科學大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宋동문이「인간의 올바른 마음가짐」이 경제의 건전한 발전은 물론、나아가서는 국가사회의 번영에 기초가 된다는 준거를 통해 아름다운 경제학의 像을 모색한 著書。

6편으로 나누어진 이 책은 제1편에「이상적인 사회와 현대인의 생활원리」에서 佛經·聖經에서 추구하는 생활원리를 해설하고 2편에서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비교했다。

제3편에서는 자본주의의 정신과 자본주의 경제원리를 설명하고 있으며、제4~6편에서는 지구촌시대의 개발형성장、인간의 무한한 성장가능성、한국인의 경제행위면에서의 특성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博英社刊 값6천원〉

家庭閑談

幸福의 意味

金昇俊 女史

孫東燮(54년 文理大卒 韓国注油機社長) 부인

그이와 내가 인연을 맺은 것은 58년 6월이었다。결혼생활 30년 가까이된 우리 가정엔 그의 표현에 따르면 딸 하나、여자 하나、계집애 하나로서 3公主를 두었는데、지금은 의젓한 사위까지 둘이 생겨 든든해하는 그의 모습을 볼때마다 이젠 늙었구나 하면서도 행복이라는 참맛을 음미해 보곤 한다。더구나 막내가 아빠의 후배가 되어 서울대학교에 다니고 있으니 더 바랄것이 없는 福받은 집안인가 보다。

大學의 교수였던 그이가『어차피 1등을 못할바에야』라는 굳은 결심과 先親의 뜻을 따라 學者에서 事業家로 변신하면서 기반다지기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시절을 겪으셨다。그이의 끈질긴 노력으로 이젠 中小企業體도 몇개 거느리고 있는 어엿한 사업인이 된 것이다。

그이는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는 만큼 술과 나무를 사랑한다。40전에는 틈만 있으면 골프와 테니스를 좋아했고 주말이면 세공주를 거느리고 야외로 드라이브를 즐겼다。매사에 소심한 그이는 비상약까지 준비할 정도여서 夫人의 역할까지 분담하고 있다。

60에 가까운 그이의 취미가 지금은 아이들이 모두 成人이 된 탓인지、아이들에 향했던 사랑을 庭園樹에 쏟고 있다。아침 저녁 나무를 벗삼아 세수를 시키고 이발도 시켜준다。옆에서 보기에도 피곤할 정도로 부지런한 그이는 집에 있는 날이면 하루종일 정원수에 묻혀 생활한다。3백여평의 정원을 혼자 가꾸는 일이 이젠 몸의 한부분처럼 자연스러워 보인다。나무들은 베푸는 만큼 보답을 한다고 할까、그의 손길이 가면 갈수록 수목들은 윤기있어지고 짙푸르게 무성해가는 것을 보면서 그이의「誠實性」이 오늘을 있게 한것을 새삼 깨닫기도 한다。

言語學을 전공한 그는 7남매의 長孫으로 90에 가까운 老父母와 몸이 弱한 아내의 뒷바라지까지 하면서 웬만한 藥師노릇도 한다。그이의 父母에 대한 孝心은 이미 定評이 나있을 정도이다。母校를 위한 관심도 남달라서 言語學科일이라면 가능한 한 돕고 있는 것으로 안다。이렇게 그이의 長點만을 나열해 놓고 보니 우리집안엔 그이만이 존재하는 것같아 언짢기도 하지만 그이를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이 새삼스레 일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同窓會費 납부하여 母校支援과 獎學사업에 寄與합시다

年会費 納付현황

(會長團·理事=7月1日~8月14日까지 / 一般會員=6月30日~8月14日까지)

※ 人名밑의 괄호안 숫자는 각 동문들의 卒業年度임.

會長團

▲副會長 李鍾贊(國會議員) 50만원

常任理事

▲新大院會長 金太文 10만원

理事〈5만원〉

◇家政大學
▲申尙玉⑥③ 중앙대학교 교수

◇工科大學
▲李應善⑤⑦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이사장
▲李昌浩⑥① 홍진금속공업(주) 대표이사
▲金 勳⑥④ 현대종합상사 부사장
▲崔壯子④⑧ 홍익대공대 교수
▲崔鎭宇⑥⓪ 삼원기계(주) 대표이사
▲李俊植⑥①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農科大學
▲馬相華⑤④ 영풍운수공사 사장
▲李在雄⑤⑥ 용마인터내셔널 전무이사
▲沈載德⑥③ 동서철강 대표
▲金南龍⑤⑦ 한국낙농비육협회

◇文理科大學
▲尹赫基⑥① KBS관리본부장
▲朴能安⑥① 서울대자연대 교수
▲金鍾云⑤⑦ 서울대인문대 교수
▲全學濟⑤① 과학기술처 장관
▲高允錫⑤④ 서울대자연대 교수
▲李京植⑥⓪ 서울대교수
▲具春會⑤⓪ 한국개발리스 사장
▲金璇東⑤⑨ 서울대사회대 교수
▲閔錫泓④⑧ 서울대인문대 교수
▲元容大⑤③ 코리아헤럴드 감사
▲李啓謚⑥① 한국관광공사사장
▲韓萬年④⑨ 일조각 사장
▲韓完洙④⑧ 새한종합금융 회장
▲金炳益⑤② 성균관대 교수
▲李忠熙⑤⑧ 한국표준연구소 부장
▲金鎔模⑥②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美術大學
▲尹明老⑥⓪ 서울대미대 교수
▲權純亨⑤⑤ 서울대미대 교수
▲朴大淳⑤⑤ 한양대미대 교수

◇法科大學
▲林順哲⑥① 변호사
▲郭義榮③⑥ 임광토건 회장
▲柳順鉉⑤② 경기대학 교수
▲朴鉉兌⑤⑥ KBS 사장
▲孫鍾奭⑥④ 총무처 기획관리실장
▲吳泰煥⑤⑦ 한양화학(주) 사장
▲宋庸植⑤⑤ 국회의원

◇師範大學
▲金容奭⑤⑧ 서울사대부중 교장
▲金千洪④⑨ 인천시교위 교육감
▲孔榮睦⑤⑦ 서울대 시설관리국장
▲文祥得⑧③ 아주대 교수
▲李胤夏⑥① 진도군수
▲文尙鎬⑤⑤ 정남산업(주) 회장
▲崔鍾哲⑥② 동아일보사편집부국장
▲安秉萬④⓪ 조일상사 대표
▲朴寅提⑤② 강원대 사대학장
▲李起芳⑥③ 중원전자(주) 사장
▲趙鏞樂⑤⑥ 변호사
▲鄭起成⑤⑦ 정일학원
▲黃哲秀⑤① 전 경기도교위 교육감
▲朴智洙⑤⓪ 전 영등포여고 교장
▲金燦榮⑤⑥ 동인천중학 교장
▲李恩昊⑤⓪ 대방여중 교장
▲朴英子⑤⓪ 부산광안여중 교감
▲全輔國⑥④ 서우산업(주) 대표

◇商科大學
▲李萬植⑤⑦ (주)해우통상 사장
▲元國熹⑤⑦ 신영증권(주) 사장
▲許平萬⑤⑦ 한국자동차보험(주) 대표이사
▲洪恩基④⑧ 한국산업리스(주) 사장
▲李正馥⑤⑧ 정풍상사(주) 사장
▲李鍾珏⑤⑤ 대한제분 회장
▲張錫靖⑥⑤ 동력자원부 자원개발국장
▲金榮洙⑤⑥ 강릉시교육청 교육감
▲李聖熙⑤⑤ 한국전자(주) 회장
▲金容煥⑥⑥ 대한섬유(주) 사장
▲趙慶壽⑥④ 한국슈미트(주) 사장
▲韓基徹⑤⑥ 한일은행 을지로지점장
▲朴炳駿⑤⑦ 강원산업(주) 전무이사
▲金永燦⑤② 경원상호신용금고 회장

◇獸醫科大學
▲趙休翼⑥③ 중앙동물병원원장
▲李道弼⑤③ 원일크리닉 이사장

◇藥學大學
▲權景坤⑥⓪ 현암약국
▲李昌紀⑤⑨ 국립보건원 안전성연구부장
▲金基豐⑤⑥ 전 태안여상 교장
▲徐廷祥④⑨ 전북일보사 사장
▲朴漢煜④⑧ 도신약국

◇音樂大學
▲金泓連⑤⑦ 서울아카데미앙상블단장
▲李成千⑥⑤ 서울대음대 교수

◇醫科大學
▲李敬智⑤③ 성일산부인과의원장
▲金明浚⑥③ 김명준외과의원장
▲朴贊武④⑦ 박찬무안과의원장
▲金眞浩⑥① 서울대의대 교수
▲劉炯來⑥⓪ 성야병원장
▲李東烈④⑨ 이내과의원장
▲朴機夏⑤④ 박기하 피부비뇨기과의원장
▲韓格富④① 한격부외과의원장
▲徐景弼⑤⑦ 서울대의대 교수

◇齒科大學
▲李炳允⑤⑤ 이치과의원장
▲卞鍾秀④⑦ 경북대치대학장
▲金正均⑥⑤ 김정균치과의원장
▲李允相⑥⑤ 이윤상치과의원장
▲金成河⑤⓪ 김치과의원장
▲南東錫⑥⑤ 서울대치대 교수

年會費 납부 안내말씀

동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同窓會는 크게 활성화되어가고 있읍니다. 年會費의 납부도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어 각종 사업을 이룩해가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읍니다. 會費를 아직 내시지 않은 동문께서는 되도록 앞당겨 내셔서 자랑스런 서울大人의 대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會費내역－

●一般會費	1만원
●理事會費	5만원
●常任理事	10만원
〈회원 3천명 이상〉	20만원
●監 事	30만원
●副會長	50만원
●會 長	1백만원

◇大學院
▲盧隆熙⑤⑥ 모교환경대학원 교수
▲李寧均⑥① 모교의대 교수

◇經營大學院
▲嚴基德⑥⑨ 보영사 사장
▲金榮漢⑦② 중앙금속(주) 사장

◇司法大學院
▲郭倉旭⑥⑤ 변호사

◇行政大學院
▲姜敏求⑥② 유성관광 사장
▲金聖奎⑦② 대한체육회 국제협력부장
▲崔典教⑦⓪ 채신공무원교육원 관리과장

◇環境大學院
▲金璟麟⑦⓪ 세기종합기술공사 사장
▲禹命奎⑦⑥ 서울시목동지구개발사업 소장

一般會員〈1만원〉

◇人文大學
▲박낙규⑦⑦ ▲유근주⑦⑧ ▲車柱環⑤②
▲전 성⑧⓪ ▲권주경⑧④

◇社會科學大學
▲윤가원⑧⑤ ▲송병탁⑥③
▲박소영⑦⑦ ▲朴哲秀⑧⑥

◇自然科學大學
▲최석진⑤⑧ ▲진교원⑧④
▲권형표⑧⑤

◇經營大學
▲이상룡⑧⑤ ▲고봉찬⑧⑤
▲정재화⑧④ ▲이원규⑧⑤

◇家政大學
▲김필순

◇工科大學
▲박병철⑥⓪ ▲최수형⑧⑥ ▲최안분⑤③ ▲송병호⑥⑤ ▲金瑛奎⑥④ ▲조순행⑥⑨ ▲안선구⑤⑧ ▲고중혁⑥① ▲김동상⑤⑨ ▲宋柱仁⑤⑤ ▲구윤회⑥② ▲尹炳陽⑤⑥ ▲김덕초⑥④
▲박찬무⑥⑥ ▲장석덕⑧③ ▲김홍균⑧⑤ ▲鄭寅洙⑦⑦ ▲김정부⑦① ▲김재한⑥⑧ ▲육태승⑤① ▲유중호⑤⑦ ▲박충조⑥⑥ ▲고종선⑥④ ▲정연원⑤⑥ ▲이광인⑧② ▲朴世英⑥②
▲元正洙⑤⑦ ▲이웅선⑤⑦ ▲김성원⑧⑤ ▲申炯淳⑧② ▲이종민⑦② ▲김희창⑥② ▲최 훈⑥⑦ ▲엄의준⑦⑨ ▲정진환⑥⑨ ▲박문경⑦⓪ ▲최항순⑧⑦ ▲길호진⑦⑦ ▲심덕룡⑤⑥ ▲金恒根⑦⓪ ▲金伯英⑥③ ▲金基昌⑥⑤ ▲尹義光⑥⑤ ▲정환구④⑨ ▲이창조⑤⑥
▲윤성섭⑤⑤ ▲이선계⑥⑨ ▲김희종⑥④ ▲신형기⑦④ ▲백용현⑤② ▲김천주⑥④ ▲이명환⑧③ ▲이동권⑦⑤ ▲金星宇⑥③ ▲이동녕⑥① ▲심규현⑧⑤ ▲최문남⑥③ ▲金海琳②⑦ ▲서창진⑧② ▲김재호⑥② ▲박민호⑦⑦ ▲안지훈⑧⑤ ▲윤종규⑥⑤

◇農科大學
▲석준호⑥⓪ ▲김권철⑥⓪ ▲김유신⑥④ ▲조종수⑦⓪ ▲김영숙⑦② ▲김재철⑧① ▲李東鉉⑤⑥ ▲한상욱⑥① ▲이우용⑤⑤ ▲안병달⑤④ ▲최무재⑤⑦ ▲한성식⑥④ ▲최태진⑤⑦ ▲金炳允⑥⓪ ▲정기선⑦⑨ ▲신대용⑤⑦ ▲최정락⑥⑧
▲許宗觀⑤⑤ ▲신민식⑥③ ▲한관석⑤⑧ ▲이창근⑥④ ▲李基東⑥⓪ ▲金鎭哲⑤⑤ ▲길득희⑧④ ▲우기원⑥⓪ ▲최예환⑥⑤ ▲서승덕⑥① ▲조광희④⓪ ▲고학균⑥④ ▲孫斗植⑥③ ▲이호진⑥⑦ ▲이규형⑤④ ▲강용찬⑥⑨ ▲김재운⑦⑤

◇師範大學
▲曺圭完⑤⑦ ▲柳今祚③② ▲정수룡⑥⓪ ▲남한식⑤⑤ ▲이석천⑤⑧ ▲곽병선⑦③ ▲문두삼⑤⑧ ▲나승환⑥① ▲김상구⑥④ ▲김대경⑤④ ▲황오성④⑨ ▲김선식⑥② ▲金仁洙⑤⑦ ▲고준아⑥② ▲최정림⑥⑥ ▲김준말⑤⑨
▲홍경모⑤④ ▲김종선⑥⓪ ▲李寅燮⑤⑤ ▲石道範④⑥ ▲권경종⑦③ ▲이맹성⑤③ ▲박형곤⑧⑥ ▲한연종⑥⓪ ▲민홍규⑤⑥ ▲이기봉⑤⑧ ▲김종순⑤① ▲아영회⑦⓪ ▲황익상⑤⑦ ▲김진규⑦① ▲이병수⑥③ ▲김정운⑤⑤
▲성기준⑥① ▲박진화⑥⑤ ▲權五振⑤⑥
▲김광호⑥⑤ ▲박승무⑤⑧

◇文理科大學
▲백완기⑤⑨ ▲이영재⑤⓪ ▲吳熙弼⑤③ ▲진건정⑥⑦ ▲고인석⑥⓪ ▲허운욱⑥② ▲오현우⑤⓪ ▲오권태⑥② ▲申鉉年⑥⑤ ▲박석홍⑥⑦ ▲李武九⑤④ ▲이걸상⑥⑥ ▲한광욱⑥④ ▲유재홍⑥④ ▲최경락⑦⑤ ▲韓貞仁⑤⑤ ▲김현배⑥④ ▲閔庚模⑤⑧
▲沈弼燮⑤⑦ ▲이종후④⑧ ▲李元求⑥⓪ ▲강희영⑤③ ▲최정호⑤⑦ ▲이의호⑥⑤ ▲박우석⑦⓪ ▲김호경⑥④ ▲나형수⑥⑥ ▲김교은⑥④ ▲김하진⑥② ▲장인식⑥⑤ ▲鄭 海⑤⓪ ▲조강래⑥⑥ ▲문인형⑥④ ▲金玄燮⑥① ▲김병열⑥② ▲이연명⑤⑨

◇美術大學
▲장동훈⑧④ ▲안상철⑤④ ▲김재임⑥⓪
▲안승희⑦⑦ ▲이춘기⑥⓪ ▲황숙경⑧⑥

◇法科大學
▲李星燮⑥⑧ ▲강영순⑦⑥ ▲이성환⑦⑧ ▲김동환④⓪ ▲김경석④① ▲이상배⑥② ▲배병우⑤⑦ ▲李鍾日⑥① ▲李丙基⑥② ▲남계호⑤⑧ ▲백대균⑧② ▲沈相達⑥① ▲文昌奎④⑦ ▲전영길⑥⓪ ▲이봉수⑤⑤ ▲방극성⑦⑧ ▲임종훈⑦⑦
▲손제회⑥② ▲林炅閏⑦① ▲신원구⑦③ ▲유창배⑦⑥ ▲김보섭⑧⑤ ▲황철수⑥⑤ ▲서용은⑥① ▲이상규⑧① ▲李龍薰⑤⓪ ▲김희분⑤⑦ ▲박종국⑦① ▲최정환⑧⑥ ▲황영옥⑥③ ▲손영재⑧⑤ ▲서돈각④⑥ ▲이범추⑤⑤
▲홍창숙⑤⑧ ▲김중곤⑦① ▲宣君星⑤⑥ ▲韓昌愚④⑧ ▲孫成吉⑤⑥ ▲金圭冕③⓪ ▲손진우⑦④ ▲金泰甲⑤⑧ ▲조의숙⑤⓪ ▲변희준⑥② ▲김영관⑥④ ▲李元範⑦⓪ ▲金相萬⑤⑥ ▲김경진⑦⑧ ▲장영희⑦⑥ ▲尹義淳⑤⑦
▲곽형기⑦⑧ ▲최종수⑥⑨ ▲崔多美③② ▲권양자⑦② ▲박성순⑧⑥ ▲陳順阿只③⓪ ▲兪千根⑥④ ▲林鍾大⑤⑦ ▲이문구⑥① ▲이병무⑤② ▲李心根③⑧ ▲張 昊⑦⓪ ▲金春子⑥⓪ ▲吳鋼卿③⑧ ▲이영호⑥⓪

◇商科大學
▲이성희⑥③ ▲李大坤⑥② ▲文學模⑥④ ▲趙英徵④⑦ ▲정이권⑤⑧ ▲이강희⑤⑦ ▲蔣鍾祿⑥③ ▲안문석⑥⑤ ▲곽일출⑤⑧ ▲성연철⑥④ ▲朴致圭⑥③ ▲李鎔元⑥④ ▲金相熙⑦⓪ ▲김홍열⑥⑦ ▲허남련⑥⓪ ▲李基仁⑤⑨ ▲김승환⑦① ▲薛英佑⑤④
▲박인석⑤⑥ ▲석풍장⑥⑥ ▲崔致煥⑥② ▲김성학⑥⑧ ▲노인환⑤④ ▲鄭俊哲⑥④ ▲신석휴⑥② ▲李載禹⑤⑤ ▲지호식⑥④ ▲강춘모 ▲채경석⑥④ ▲최위철⑥① ▲정영기⑥⓪ ▲임봉규⑥⑥ ▲박원준⑥⑦ ▲이용성⑥⓪ ▲박재범⑤⑧ ▲鄭韶永⑤⑤

◇獸醫科大學
▲김종상⑥② ▲李秉天⑤⑧ ▲이윤섭⑤⑨ ▲정양섭⑥② ▲이종화⑤⑦ ▲이원섭⑦④ ▲최귀철⑧① ▲윤석순⑥④
▲조경래⑤⑧ ▲박승도⑦⓪ ▲김재중⑤⑨ ▲임홍균⑥① ▲朴在泳⑤⑥ ▲최찬영⑦③ ▲정종태⑧⑤

◇藥學大學
▲金俊鎬⑥⓪ ▲金順子⑥① ▲최정수⑦⓪ ▲朴明鎬⑤⑦ ▲김휘배⑥⑤ ▲유성열⑤⑥ ▲朴建治⑥⑤ ▲朴承逸⑧⑤
▲문범수⑤⑥ ▲박홍재④⑨ ▲陸安修④⑨ ▲진철자⑤⓪ ▲문창규⑥③ ▲임충양⑤⑦ ▲강탁림 ▲이재철⑦⑥

◇音樂大學
▲이연희⑥② ▲윤양석⑥① ▲김중석⑥② ▲김금수⑧⓪
▲홍정표 ▲윤치호⑥⑥ ▲최봉금⑥⑨ ▲朴 進⑥③

◇醫科大學
▲이종국⑦⑦ ▲유형래⑥⓪
▲한명석⑦⑦ ▲하종원⑧⑤ ▲成泰英⑤⓪ ▲金東明⑦⑥ ▲신현우⑦① ▲이봉화⑦⑤ ▲최상해⑤⑨ ▲한갑수⑤⑤ ▲박준병⑤⓪ ▲이혜선⑧⑦ ▲김우영④⑨ ▲윤승찬⑦② ▲金官暉⑤⑨ ▲박봉윤⑤⑨ ▲이형진⑤② ▲차창일⑦⓪ ▲金源會⑥② ▲이상국⑤③ ▲민성원⑧⑥ ▲이영균④④ ▲이수일⑦⑤ ▲장기홍⑥⑥ ▲李在春③⑧ ▲황순국⑤⓪ ▲이덕진⑦⑤ ▲金振鏞⑤② ▲조성수⑦⑥ ▲崔同洙⑥⓪ ▲최진숙⑧④ ▲이호진⑦⑦ ▲윤용구⑦② ▲송영옥⑧⓪
▲이종복⑧⑤ ▲박영수④⑧ ▲임홍철⑦⑤ ▲全奎植⑤⑥ ▲유명철⑥⑦ ▲金相雨⑤⑤ ▲서창해⑦⑨ ▲박정수⑥⓪ ▲임재준⑤⑥ ▲김삼수⑤⑥ ▲박문회⑤⑧ ▲이언복⑤⑧ ▲崔忠信⑥⑦ ▲송계숭⑧⓪ ▲장한연⑤① ▲김 윤⑥⑧ ▲김정진④⑦ ▲林漢鍾⑤⑦ ▲신영우⑦⑦ ▲이종훈⑤⑤ ▲이명덕⑦③ ▲양진묵⑥⑧ ▲최병인⑦④ ▲최헌진⑦④ ▲姜錫鎬⑤⑧ ▲류 빈⑧④ ▲이중화⑥① ▲전대표⑥① ▲유병철⑦⑦ ▲배원영⑦⑥ ▲도광찬⑦①
▲김정태⑦④ ▲장도훈⑦① ▲강현규⑥① ▲김규문⑥③ ▲박희세⑤⑧ ▲박시우⑤⑧ ▲서정희⑤⑧ ▲이의웅⑥⑤ ▲백순제④⑦ ▲지형숙⑦⑧ ▲김동명⑧⓪ ▲이성근⑦⑦ ▲권성진⑥⑦ ▲김용호⑤⑧ ▲박태선⑤⑧
▲김기국⑦⓪ ▲고재승⑥⑦ ▲이태구⑤⑥ ▲김창원⑦⑤ ▲金寅錫⑥⓪ ▲전언년⑦⑥ ▲박주형⑦⑤ ▲주광섭②⑨ ▲김영구⑦① ▲이종훈⑥① ▲김현진⑥⓪ ▲朴東旭⑦③ ▲이성근⑦① ▲정종평⑥⑨ ▲이운영⑥⓪

◇大學院
▲이원한⑥⑤ ▲姜斗煥⑦⑨ ▲박태원④⑨
▲정호선⑦⑤ ▲이병태⑥⑦

◇經營大學院
▲구경철⑧⑦ ▲윤동식⑥⑨ ▲李云才⑦② ▲金恒錫⑦⑦ ▲박철호⑤⑨ ▲황인하⑦③ ▲이강선⑦② ▲李榮一⑦② ▲박준석⑥⑨
▲조웅식⑦② ▲황길태⑥⑦ ▲설영식⑧③ ▲鄭相喆⑦⑨ ▲양해경⑦① ▲안기준⑥⑨ ▲이기현⑦⑤ ▲康鉉鎬⑦②

◇保健大學院
▲배길환⑦⑦ ▲김순태⑦④
▲홍재웅⑥⑨ ▲최용어⑥⑥

◇新聞大學院
▲권광명⑦⑥ ▲金敏男⑦⑧

◇行政大學院
▲이창세⑥① ▲김영기⑦① ▲권혁지⑥③
▲도명정⑦③ ▲신동천⑥⑥

◇未詳
▲이덕형 ▲천홍현 ▲최태진 ▲박효일
▲정혜선 ▲김재윤 ▲조은경

◇看護學科
▲문정진⑤⑧ ▲이명혜⑦⑨

◇齒科大學
▲李敏榮⑥② ▲金祥世⑥⑥ ▲전광선⑥⑧ ▲최금자⑤⑥ ▲朴贊成⑤⑥ ▲吳春圭⑧⑧ ▲金貞煥⑦③ ▲韓鍾德⑤⑨ ▲이왕주⑥① ▲박희화⑥⑨ ▲양희태⑦⑤ ▲김기창⑦⓪
▲양규호⑦⓪ ▲김진춘③④ ▲김영재⑥⑨ ▲한기완⑦③ ▲김성우⑦⑤ ▲이건주⑦① ▲황정일⑦⓪ ▲白尙恩⑤⑦ ▲이수배⑦④ ▲정성창⑥⑦ ▲성백균⑦① ▲우진희⑦③

職場支部

◇동화약품(주) 36만원
▲이우용(法) ▲이병권(藥) ▲김원기(藥) ▲김윤희(法) ▲송성호(藥) ▲조태영(藥) ▲우제안(藥) ▲노태호(藥) ▲최한곤(藥) ▲최명식(藥) ▲임영오(農) ▲이종규(藥)
▲이창호(工) ▲염재훈(農) ▲서원교(藥) ▲윤덕열(法) ▲유종근(農) ▲김승대(藥) ▲김광조(法) ▲김용우(藥) ▲김기수(農) ▲전계수(藥) ▲김의영(藥) ▲이치우(藥)
▲황규언(法) ▲주상은(藥) ▲허창욱(自) ▲김일권(法) ▲윤성준(藥) ▲공미경(藥) ▲홍성한(藥) ▲유제만(藥) ▲유재영(藥) ▲이태승(藥) ▲박은영(藥) ▲이은정(藥)

同門作家短篇選

물과 물

趙星基〈77년 法大卒·作家〉

『백성들이 그와같이 정신적으로 강하게 뭉쳐 있다면 이렇게 성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있지 말고 아예 들판으로 나가 지백의 군대와 맞붙는 것이 좋지 않겠소? 시일이 지체되면 우리 쪽이 더욱 불리하게 될텐데…』

조양자가 칼자루를 손에 쥐면서 부르르 몸을 떨었다. 원과와 장맹담을 비롯한 가신들이 급하게 시선을 서로 주고 받았다. 그 시선들은 말없이 무언가를 합의하고 있는 것이었다. 가신 중의 한사람인 고혁(高赫)이 그 무언의 합의 내용을 조양자에게 내어 놓았다.

『전쟁에 있어 정신적인 무장이 가장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닌 줄 압니다. 무기와 군사의 수도 무시할 수 없읍니다. 지백의 군대는 한·위의 군사들까지 연합되어 있어 그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섣불리 출성(出城)하였다간 변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을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러면서 지·한·위 연합군 사이에 틈이 벌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원래 한 위 두 집은 지백에게 억지로 땅을 떼어 주었고 여기까지 출정한 것도 지백의 위협에 못 이겨 울며 겨자 먹기로 한 것에 불과합니다. 몇 달이 지나면 반드시 그들 사이에 동요가 있을 것입니다.』

가신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생각이 깊은 고혁의 간언인지라 조양자도 자기 주장만을 내세울 수는 없었다. 그리고 가만히 듣고 보니 고혁의 계략이 더욱 지혜로운 것 같기도 하였다.

『그럼… 고혁의 말대로 일단 버티어 보기로 합시다. 하늘이 때를 마련해 주기까지…』

그러면서 조양자는 일전에 원과가 건네준 그 대나무의 글귀들을 떠올렸다.

진양성을 얕보고 일주일 정도의 작전계획을 세워 치달려온 지백은 시일이 지나갈수록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성벽을 타고 오르도록 고안한 높은 사닥다리인 운제(雲梯)나 성벽을 아예 허물어뜨리기 위해 만든 성공퇴(城攻槌)들을 사용해 보아도 진양성 백성들의 완강한 저항에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어느새 해가 바뀌어 맹춘지월로 접어들었다. 동풍이 불어 얼음이 풀리고 칩거했던 벌레들이 비로소 준동하고 물고기가 엷은 얼음 조각들 위로 떠올랐다. 수달은 물고기들을 잡아 제사상에 제물을 진열해 놓듯 물가에 죽 늘어놓았다. 사람들은 그것을 달제어(獺祭魚)라고 하였다. 하늘에는 남쪽에서 날아오는 기러기 떼들이 갖가지 문자들을 그리고 있었다. 천기(天氣)는 밑으로 내려오고 지기(地氣)는 위로 올라가서 천지가 화동(和同)하는 가운데 산과 들에는 초목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토록 훈훈한 봄 기운이 대지를 뒤덮고 있건만 지백의 이맛살은 펴질 날이 없었다. 지백은 몇명의 군사만을 대동하고 진양성 근방으로 정찰을 나갔다. 아무리 성 주위를 돌아다니고 성벽을 올려다보아도 진양성을 공략할 묘책이 여전히 떠오르지 않았다.

『철옹성이로고 철옹성이로고.』

지백의 입에서는 거의 탄식과 같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이번에는 진양성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서북쪽 근방의 산으로 올라가 보았다. 그런데 산속 깊숙한 곳에서 맑은 샘물이 콸콸 솟구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물은 처음에는 작은 시냇물이 되어 흐르더니 차츰 계곡을 따라 기운차게 흘러 내려갔다. 지백은 그 물이 진양성을 끼고 동편으로 흐르는 진수(晉水)와 합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는 갑자기 손뼉을 치며 고개를 연신 끄덕거렸다.

산에서 내려온 지백은 곧 한강자와 위환자, 그리고 지과를 비롯한 가신들을 불러 모아 작전계획을 새롭게 구상하였다.

『하늘이 나에게 지혜를 주었소. 불로도 흙으로도 쇠로도 되지 않던 것을 물로써 할 수 있게 되었소.』

자신만만한 지백의 말에, 『물이라니요?』 하고 모두들 의아해 하였다.

『나, 오늘 저기 용산(龍山)이라고 하는 산에 올랐다가 진수의 발원지를 발견했단 말이요. 그때 물로써 승부를 내야겠다는 생각이 영감처럼 떠올랐소.』

『그럼, 진수의 물길을 돌린단 말이요? 아니면 진수의 둑을 튼단 말이요?』

한강자가 그 호랑이 눈을 더욱 동그렇게 해 가지고 급하게 물어 왔다.

『진수의 물은 그런 방법으로 해서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요. 아예 용산의 산허리에 큰 저수지를 만들어 발원지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모아 두었다가 한꺼번에 터놓아 진양을 침수시키겠다. 이거요. 어떻소. 내 작전이?』

과연 탄복할 만한 작전이었다.

『이제 곧 봄철 우기(雨期)가 시작될 텐데 정말 시기 적절한 작전입니다.』

지과가 맞장구를 쳐 주자 지백은 더욱 의기양양해졌다.

『이제부터 구체적인 작전계획을 시달하겠으니 착오 없도록 하시오. 한공(韓公)은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진양 동편의 언덕배기에 진을 치고 매복해 있으시오. 그리고 위공(魏公)은 남쪽 구릉에 매복하시오. 그리하여 진양성에서 빠져나와 동으로나 남으로 도망하는 자들이 있거든 모조리 잡아 죽이시오. 난 용산 쪽으로는 군대를 이동해 가서 저수지 공사를 벌이면서 서편과 북편을 책임지겠소. 구태여 성안으로 쳐들어갈 필요가 없소. 가만히 앉아서 모조리 수장을 시켜 버릴 테니까. 우린 물에 빠진 생쥐같은 몰골을 하고 성에서 도망쳐 나오는 자들만 죽이면 되는 거요. 허허허. 이제 승리는 목전에 다가왔소.』

지백은 점점 더 기고만장해져 금방이라도 개선축하잔치를 벌일 기세였다.

한강자와 위환자의 얼굴에는 곤혹스런 표정이 스치고 지나갔다. 조씨를 멸망시키는 일에 어쩔 수 없이 끼어 들게 된 자신들의 처지가 스스로 생각해도 못마땅한 것이었다. 특히 한강자는 요즘 들어 중원에서도 정치 윤리가 퇴락해 가고 오직 힘의 논리만이 판을 치는 세태에 대해 속으로 통탄하고 있었다. 춘추 5패 시절만 해도 패자들은 존왕양이(尊王攘夷)와 계절존망(繼絶存亡)의 원칙을 고수하려고 애써 온 셈이었다. 존왕양이라 함은, 비록 힘은 없지만 그래도 구정(九鼎)을 가지고 있으면서 중국을 대표하고 있는 천자국(天子國) 주(周)나라의 임금을 높이 받들고 주위의 약소국들을 물리친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계절존망이라 함은 망해 가는 약한 나라들을 존속시켜 주어 그 조상신에 대한 제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배려해 주는 원칙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씨가 설치기 시작하면서부터 존왕양이니 계절존망이니 하는 정치 윤리 같은 것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말았다. 오직 약육강식의 비정함과 탐욕만이 중원의 판도를 좌우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한강자 자신도 그런 세태를 통탄하면서도 슬그머니 거기에 물들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이번에 조씨를 쳐서 멸망시키면 조씨의 토지를 3분해서 나누어 가지자는 지백의 제안에 마음이 끌렸던 것도 이미 그러한 세태에 물이 들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승리를 장담하는 지백을 보면서 한편 말할 수 없이 비참해지고 불안해지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지백의 군사들은 순식간에 거대한 무리의 인부들로 변했다. 삽과 곡괭이들이 용산의 산허리를 쉴새 없이 파헤쳤다. 한 달이 채 못되어 큰 저수지가 급조되었다. 샘물에서 솟구치는 물이 그 저수지로 흘러들도록 수로를 만들었다. 때마침 봄비가 쏟아졌다. 진수로 흘러갈 물들이 저수지로 모여 들어 범람할 지경에 이르렀다. 지백은 군사들을 시켜 진양성 방향으로 저수지의 둑을 허물어뜨리도록 하였다. 둑이 터지면서 물이 쏟아지는 바람에 여러 명의 군사들이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 갔는데도 지백은 눈썹 하나 까딱 하지 않았다.

거센 물살은 스스로 수로를 만들면서 진양성으로 쏟아져 내려갔다. 물살의 힘에 성벽의 일부가 무너지고 성벽 근처의 집들이 한편으로 기울어지면서 떠내려가기도 하였다.

성중은 온통 물바다가 되었다. 물은 점점 차 올라 이제 6자만 더 불어나면 대부분의 지붕들이 물에 잠길 판국이었다. 물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며칠이 지나도 계속 불어나기만 하였다. 사람들은 가재도구를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가 거기서 밥을 해먹고 자기도 하였다. 지붕 지붕마다 솥들이 걸려 있는 진풍경이 진양 성내에 가득 펼쳐졌다. 그리고 발붙일 곳을 잃은 개구리들이 지붕으로 뛰어올라 지붕은 개구리들로 이엉을 얹어놓은 것 같았다. 사람들은 개구리들과 함께 지내며 어떤 때는 그것들을 잡아 삶아 먹기도 하였다. 캄캄한 밤중에 개구리들이 일제히 울어 대는 소리는 진양성이 멸망 당하지 않도록 진양의 조상신들께 탄원하는 부르짖음인 듯싶었다.

『개골 개골 개골 구하소서 구하소서.』

본영(本營)을 성루로 옮긴 조양자는 예상치도 않았던 사태에 잠시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다시 분연히 일어나서 장맹담과 함께 뗏목을 타고 다니며 백성들을 격려하였다. 백성들은 오히려 조양자를 안심시키며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결의들을 내비쳤다. 조양자는 감격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오늘 새삼스럽게 윤탁이 선정(善政)으로 얻어 놓은 민심이 어떠한가를 알겠소.』

그러면서 품에 넣고 다니는 그 대나무 두 쪽을 손으로 가만히 더듬어 보았다.

이 진양성 싸움은 장장 3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고 한다. 조양자는 진양성의 민심을 확고한 기반으로 삼고 버티면서 결국 한강자와 위환자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지백의 군사들이 파놓은 저수지의 둑을 지백 진영 쪽으로 허물어뜨림으로써 지백과 그 군사들을 수장시켜 버린다.

이 싸움은 지금 남북한 간의 물 싸움을 연상시킨다. 그리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선정(善政)을 통해 얻은 민심을 기초로 한 유비무환의 정신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을 가질 때 비밀스러운 신탁의 대나무가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은 서로를 물로써 멸망시키려고 할 게 아니라 민족공동체로서 함께 살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회〉

母校소식

時局관련 제적생 復校기준을 확정

모교는 지난 12일 임시학장회의를 열고 84년 학원자율화 이후 학원사태와관련 제적된 학생전원을 2학기부터 복학시키기로 확정했다。

학교측이 이날 확정한 복교대상학생은 83년 12월 22일 이후 최근까지 제적된 학생중 ▲순수학원사태관련제명자 ▲학원사태관련 미등록제적자 ▲학원사태관련 학사제명자 ▲학원사태관련 자퇴자등으로 모두 3백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숫자는 학사제명자나 미등록제적자까지 복교대상을 넓혔다는 방침에 따라 당초예상보다 60여명이 늘어난 숫자다。

학교측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각 단과대학은 이날부터 복교대상학생 선별작업에 들어갔다。

제18대 總長에 趙完圭박사 就任

學長·副總長등 주요補職 두루거쳐

「發展長期計劃」 실천 다짐

모교 제18대 總長에 趙完圭교수(동물학)가 지난14일자로 임명 발령되었다。신임 趙총장은 52년 모교 文理大 生物學科를 졸업한후 55년 文理大 대우강사로 모교강단에 선 이래 현재까지 줄곧 모교에서 후진을양성해온 전형적인 「서울大人」이다。

한편 취임식은 지난25일 오전11시 관악캠퍼스 교수회관 대회의실에서본회 崔主鎬회장을 비롯한 동창회 회장단과 徐明源 문교장관등 내외귀빈, 역대총장, 교수, 학생대표등 약 4백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있었다。

이날 취임식에서 趙총장은 취임사를 통해『대학은「教育·研究·社會奉士」를 그 기능의 核으로 삼고 있다』고 전제,『지난해로 開校 40주년을 맞은 우리 서울大學校는 그사이 두드러진 量的 팽창을 거듭하면서 그런대로 위의 세가지 기능면에서 우리나라 高等教育을 선도해온 것은 사실이나 기대한만큼의 質的 성장이 뒤따르지 못하였다』고 아쉬움을 표한후 『앞으로는 未來指向的이고 創意的인 교육과정운영을 통하여大學院教育을 質的으로 더욱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그 바탕이 되는 教養教育의 획기적인 개선에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역설했다。

趙총장은 『教授會가대학의 정책결정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제는 教授會가 본래의 기능을 더욱 살려서 더활기찬 대학의 분위기가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을 분명히 했다。

趙총장은 또 「서울大學校發展長期計劃」에 대해서도 언급,『이발전계획이 단순한 계획으로머물지 않고 반드시 實現을 볼수 있도록 하나하나 착실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신임 趙총장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

▲1928년生 ▲52년 모교 文理大卒 ▲56년同大學院 수료 ▲69년 모교서 이학박사학위 취득 ▲55년 모교 文理大 대우강사 ▲57년 同전임강사 ▲61년 同조교수 ▲65년 同부교수 ▲67년同학생과장 ▲68년 同교수 ▲70년 의·치의예과부장 ▲74년 이학부장 ▲75년 자연과학대학장 ▲79년모교 副總長 ▲80년 자연과학대학 교수 ▲87년 8월14일 모교 總長 ▲기타 本報 편집위원 한국동물학회장, 대한불임학회장, 한국환경성돌연변이발암원학회장,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등 역임。현재 한국유전공학학술협의회장, 한국실험동물과학협의회장, 한국과학기술재단부이사장, 교육개혁심의회위원,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장 ▲87년 국민훈장모란장수여(과학기술분야)

9개 單大學長補 포함

附屬機關長 일부 更送

모교는 지난달초 單大學長補를 비롯 附屬機關長 일부를 경질, 人文大學교무담당학보에 李楠永교수(철학)를, 社會科學大學교무담당에 朴英演교수(지리학)를, 학생담당에 黃秀益조교수(정치학)를 각각 임명했다。

모교는 또 自然科學大學 학생담당학장보에 沈載亨교수(해양학)를, 農科大學 교무담당에 金顯旭교수(축산학)를, 학생담당에 廉道義교수(원예학)를 임명했으며 師範大學 교무담당에 金信一부교수(교육학)를, 학생담당에 鄭應根부교수(체육교육학)를, 약학대학교무담당에 文昌奎교수(약학)를 각각 발령했다。

또 부속기관장에는 自然科學綜合研究所長에 자연대학 崔炳斗교수(물리학)를, 冠岳舍 사감장에 사범대학 黃載職교수(지리교육)를, 새마을運動綜合研究所長에 농과대학崔敏浩교수(농업교육)를, 新聞研究所長에는 사회대학車培根교수(신문학)가 각각 발령되었다。

研究副處長에 徐正憲교수 發令

지난 7월1일 모교내부규정에 의해 신설된研究處 副處長에 자연과학대학 徐正憲부교수(화학과)가 8월3일자로 발령되었다。이에따라 연구처의 업무는 8월4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연구처는 교수연구지원및 연구진흥 업무를 맡게되었다。

新入生 매년 2백50명 감축

91년까지 大學院중심 大學으로 육성

유사學科통합 學部制 운영

교수 評議會를 議決기구로

모교는 대학원중심대학으로 전환하기 위해 학사과정인원은 점차 줄여나간다는 방침아래 오는 88학년도 입학인원을 87학년도보다 2백74명이줄어든 4천3백95명으로결정하고 이후 해마다 입학인원을 2백50여명씩감축해 91년에는 입학인원을 3천6백45명으로 줄이기로 했다。모교는 10년뒤인 2001년까지 입학인원을 이 수준에서동결키로 했다。

모교는 또 학과의 지나친 세분화로 학사과정의 전공교육이 파행성을 면치못하고 있다고 판단 오는 91년까지 인문대 사회대 자연대 공대 농대 사범대등 6개 대형 대학의 학과는 2~4개씩 유사학과를 묶어 한개의 「학부」를 신설, 각대학에 4~6개씩 「학부」를 운영하는등 대학조직을개편키로 했다。

모교는 이와함께 단과대 소속 교수비례에 따라 선출된 대표교수들로 교수평의회를 구성, 대학의 주요업무에 대한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운영키로 했다。

모교는 앞으로 15년간의 발전계획을 담은 이같은 내용의「서울대발전장기계획(1987~2001년)을 지난 7일오후 전교수들이 참석한가운데 확정, 정부에 건의했다。

모교는 이 계획에서의대와 치대의 학사과정을 폐지, 의대의 경우 오는 92년부터, 치대는 97년부터 각각 4년의 대학원과정으로 전환, 연관학문을 전공한 4년제대학졸업자가 진학토록해 수업연한을 현재의 예과2년 본과4년등 6년에서 8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수의대는 예과2년과본과 4년등 6년으로, 법대는 예과2년과 본과3년등 5년과정으로 학제를 개편키로 했다。

모교는 또 박사학위과정을 이원화, 논문제출로 학위를 취득하는 학문화위와는 별도로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논문을 면제하는 대신 이수교과목을 늘려 이를 이수하면 학위를 주는 전문학위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또한 졸업에 필요한 학기수(學期數)의 규정도 폐지, 1백40학점이상을 취득하고 교과과정상의 요건을 충족시키면 언제든지 졸업이 가능케 하는등 조기졸업제도를 확대시행키로 했다。

그리고 비행기 소음, 수질오염등 교육환경이 매우 악화되고 있는 水原의 농대와 수의대를 오는 92년부터 관악캠퍼스부근으로 단계적으로 이전키로 했다。

모교는 현행 교수재임용 제도는 조교수까지만 적용하고 부교수이상 직급의 교수는 특별한 징계사유가 없는한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되는 정년보장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교수들의 연구활동진작을 위해서 오는 97년부터 모든 교수에게 6년근무후 안식년의 일종인 1년씩의 연구년(研究年)을 부여해 이기간동안 해외파견, 해외출장등에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한편 대학원과정교육의 질적향상을 위해 향후 15년간 교수정원을 연평균 40명씩 늘려 목표연도인 2001년에는 교수대 학생의 비율을 현재의 1대20에서 1대12로 낮추기로 했다。